

L o c a l E x c h a n g e & T r a d i n g S y s t e m

# 지역통화 (LETS)

##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0.11.2(목) ▶ 3(금)

장소 : 길동 두산연수원

주최 : 미내사클럽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후원 : 행정자치부

지역통화운동(LETS)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

첫째날 | 2000.11.02 (목)

|       |                                                                                                                                                                                                                                                                                                                                       |
|-------|---------------------------------------------------------------------------------------------------------------------------------------------------------------------------------------------------------------------------------------------------------------------------------------------------------------------------------------|
| 2:00  | 접수 및 등록                                                                                                                                                                                                                                                                                                                               |
| 2:30  | <b>여는 모임</b><br>인사말 - 법륜스님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br>일정안내                                                                                                                                                                                                                                                                                     |
| 3:00  | <b>심포지움</b>   사회자 :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br><b>지역공동체운동을 위한 지역통화운동(LETS)의 활성화를 위하여</b><br><b>발제 1 : 대안공동체운동과 지역통화운동의 세계적 현황 :</b><br>이창우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br><b>발제 2 :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b><br>이득연 (소비자보호원 연구원)<br><b>발제 3 : 한국의 지역통화운동의 일점돌파를 위하여</b><br>곽형모 (미내사 클럽)<br><b>토 론 :</b> 허선행 (열린사회시민연합)<br>박경화 (월간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아장터) |
| 5:00  | <b>소개의 시간</b>                                                                                                                                                                                                                                                                                                                         |
| 6:00  | 저녁식사                                                                                                                                                                                                                                                                                                                                  |
| 7:00  | <b>문화공연 및 영화상영</b>                                                                                                                                                                                                                                                                                                                    |
| 7:30  | <b>전체토론 및 사례발표</b>  사회 : 권인천 (관악주민연대)<br>사례발표 1 : 문수지 (송파구청)<br>사례발표 2 : 권인천 (관악주민연대)<br>사례발표 3 : 임종한 (인천 지역화폐 추진위)<br>사례발표 4 : 김성규 (대전한발레츠)                                                                                                                                                                                          |
| 8:45  | 휴식                                                                                                                                                                                                                                                                                                                                    |
| 9:00  | <b>전체토론 및 사례발표</b><br>사례발표 5 : 유지민 (기술도구은행)<br>사례발표 6 : 현병호 (민들레 교육통화)<br>사례발표 7 : 김일복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 10:00 | 경험과 나눔의 시간                                                                                                                                                                                                                                                                                                                            |

둘째날 | 2000.11.03(금)

07:00 기상세면 / 아침명상

08:00 아침식사

09:00 **분과토론**

**지역통화운동의 활력을 위한 다양한 대안찾기**

**토론그룹 1 : 지역행정단위에서 지역통화의 촉매**

송파품앗이, 서초품앗이, 청주시청, 안양시청, 대구동구청 봉사품앗이, 대구남구청

**토론그룹 2 : 지역공동체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

작아장터, 구리녹색가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구리녹색가게, 열린사회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전주품앗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나눔, 인천생협, 제주여성민우회, 성남참사랑복지회, 전주, 미네사클럽, 대전한발레츠, 안양빈들교회, 성북청년회, 기술도구은행

**토론그룹 3 : 특별지역통화의 활력을 위한 방법찾기**

민들레교육통화, 감리교통합품앗이, 인천정보통신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신촌교육통화, 대전빈들교회

11:00 **전체발표** | 사회 : 곽형모(미네사클럽)

12:30 점심식사

01:30 **네트워크회의 :**

**지역통화운동네트워크를 위하여**

- 1) 시스템에 대한 Q&A
- 2) 시스템 확산을 위한 방침
- 3) 네트워크 회의

03:00 **소감과 느낌나누기** |진행 :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04:00 **닫는 모임**

빈페이지입니다.

## 지역통화운동의 세계적 현황

이창우 |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 1. 서론

IMF 구제금융 체제가 한창이던 1998년 3월, 미내사가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 이후 지역통화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수십개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관심이 사라지는 듯 하던 지역통화운동이 최근 국가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각광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안공동체운동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차별하게 종합적으로 지역통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역통화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의 지역통화운동 경험을 서로 나누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 지역통화운동 발전사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지역통화운동은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인간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통화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모두를 경쟁자가 아니라 공유자원으로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경제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회용이 되지만 지역통화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공허함을 메꾸기 위하여, 좀더 힘이 있어 보이려고 돈으로 물건을 산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은 인간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지역통화제도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통화제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고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역통화운동의 세계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물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볼 때 지역통화운동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지역통화운동의 세계적 동향

### 가. 지역통화운동의 일반현황

1930년대 세계 대공황시기에 유행하던 지역통화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전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0개 정도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sup> 형태와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국에서만 현재 거의 500개에 이르는 지역통화제도가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에도 수백개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지역통화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멕시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운영되고 있어 지역통화제도는 전세계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시스템에는 100명 이하의 회원이 있지만, 또 어떤 시스템에는 수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기도 하다.

1999년 현재, 공식적으로는 영국에 약 270개 LETS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프랑스 300개, 호주 250개, 미국 110개, 이태리 100개, 네덜란드 90개, 독일 90개, 뉴질랜드 57개, 벨기에 29개, 캐나다 27개, 오스트리아 19개, 스위스 1개, 스웨덴 14개, 노르웨이 7개, 덴마크 3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sup>

어떤 지역통화제도는 지역에서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화폐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에 대응하여 창의적인 한 개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또 다른 지역통화제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개발 운동가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였다. 지역통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지역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초의 LETS는 1985년 놀위치에서 시작되었으나 1990년에 들어와서야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초에만 해도 영국에는 겨우 5개의 지역통화제도가 있었으나 1992년 말에는 40개, 그리고 1999년 말에는 270개로 증가하였다. 영국에서의 LETS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270개 LETS 중 105개 시스템이 응답하여 38.7%의 응답율을 보인 이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05개 시스템이 평균 7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4,644파운드의 연간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 조사로 추정해 볼 때, 1999년 영국에는 약 2만명의 LETS 회원이 있으며, 130만 파운드의 연간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Barbara Brandt, "Low-Income Groups Try Out Community Money Systems", *Dollars and Sense*, May/June 1999, p30.

2) Colin C. Williams, "Paving the 'Third Way'? Evaluating the Potential of LETS", *Town and Country Planning*, March 2000.

## 나. 지역통화의 분류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가 있는데 지역통화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가) 민간이 발행하는 지역통화

민간이 발행하는 지역통화의 역사는 17세기 웨이커 교도 존 벨러<sup>3)</sup>(John Bellers)가 실업자에게 노동지폐(Labor Notes)라는 지역통화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sup>3)</sup>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중앙사무소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지폐를 받은 자에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이 지역통화를 순환시켰다. 비슷한 방법이 자선사업가인 로버트 오웬(Robert Owen)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는데, 그는 1832년 ‘국가 형평 노동 거래소’를 열어 지역통화체도를 운영하였다. 1849년 프랑스 사회주의자 푸르동이 파리에 인민은행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지역통화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부족한 국가화폐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수많은 지역통화가 세계 대공황기에 생겨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1933년 뉴욕주 버팔로의 Larkin 주식회사가 발행한 Larkin 상품 채권증서(Merchandise Bond)를 들 수 있다. 직원들에게 봉급 대신으로 지급된 이 채권증서는 미국내 Larkin의 모든 소매점과 기타 다른 가게에서도 통용되었다. 대공황이 끝나자 다양한 임시지폐(scrip)도 사라졌다.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한 마을인 Schwanenkirchen에서 1931년에 지역통화가 통용된 바 있다. 폐쇄된 석탄광산을 인수한 새 주인이 채광작업을 재개하면서 광부들에게 wara라는 지역통화를 지급하였는데 이 지역통화는 마을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가게 주인들은 석탄을 사는 데 이 지역통화를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독일 정부는 인플레이를 우려하여 이것을 금지시켰고, 결국 이 석탄광산이 다시 문을 닫기에 이르렀고 광부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었으며 지역경제도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텔리 달러, 이타카 아워즈, 타임 달러, LETS 등도 민간부문이 발행하는 주요한 지역통화이다.

---

3) M. W. Danson, "The Other Side of the Coin: Local Curren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Regional Studies*, Vol. 33, No. 1, 1999, pp63-72.

#### 나) 공공이 발행하는 지역통화

대공황 임시지폐(Depression Scrip)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발행 지역통화 중 하나이다. 사실 임시지폐라는 아이디어는 1932년 오스트리아의 Worgl이라는 마을에서 높은 실업률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처음 시작되었다. 공무원 봉급의 반이 임시지폐로 지급되었는데, 지방기업들은 이 지역통화를 이용하여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지역통화를 받고 물건을 팔았다. 지방기업들은 이 임시지폐에 대해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임시지폐에 상응하는 금액의 국가화폐가 지방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임시지폐의 소유자는 은행에서 언제든지 액면가의 98%로 현금 교환이 가능했다. 이 임시지폐가 순환되지 않고 저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진 이자율이 도입되었다. 즉 이 임시지폐가 발행되고 난 다음 달부터 1달마다 임시지폐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해야만 그 임시지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된 임시지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낸 임시지폐는 곧 바로 다시 순환되었다. 한 공공사업에 고용된 50명의 노동자에게 전액 이 임시지폐로 봉급이 지급된 적도 있었으며, 시행된 첫 한달에 체납된 지방세 4,542 실링이 납부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화 발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화폐공급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Worgl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임시지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임시지폐를 발행하였다.

1985년 아르헨티나의 Salta Province 지방자치단체도 임시지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공무원이나 채권자들은 당장 지역통화를 받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뒤에 현금을 받든지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역통화를 선호하였다. 이 임시지폐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임시지폐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지폐에 인쇄된 특정 번호를 가지고 경품을 내걸기도 하였다. 여러 상점이나 기업들에서 이 임시지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시스템은 인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데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비해 그 액수가 적히 적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 2) 가치기준에 따른 분류

한편 North(2000)는 지역통화의 가치를 시간에 기준을 두고 정하는지 아니면 시중화폐와 연동하여 정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지역통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우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는 지역통화제도로는 LETS Scheme, Talents, Grain of Salt, Time Money, Ithaca Hours 등이 있다. 그리고 시중화폐를 기준으로 이와 연동하여 값을 매겨 운영되는 지역통화제도로는 Green Dollars, LETSystems, Deli Dollars, WIR, Tlocs 등이 있다. 이하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통화제도를 살펴본다.

## 3.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

### 가. 렛츠(LETS)

LETS에는 LETS Scheme과 LETSystem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LETS Scheme은 주로 수표를 사용하면서 시간에 기초하여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LETS는 사실 LETSystem이다. 우선 LETSystem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LETSystem

우리에게 LETS로 알려진 지역통화거래체계는 사실 이 LETSystem이다. 1983년 캐나다 벤쿠버의 코목스 밸리에 있는 커트니라는 소도시에서 미공군기지가 이전하고 이 지역의 기반산업인 목재산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18%까지 치솟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온 마이클 린턴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에는 6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통화 거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그는 녹색달러라는 지역통화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주민들이 서로 재화와 용역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 마이클 린턴은 G7 경제정상회의와 병행해서 열린, 신경제 사상가들의 포럼인 'The Other Economic Summit'에서 그의 LETS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하여 LETS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LETSystem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 많이 보인다. LETS Scheme과 상당 부분 유사하나 국가화폐와 연동시켜 운영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화폐명 대신 일반적으로 녹색달

러 등 보편적인 이름의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LETSystem은 LETS Scheme보다는 뉴스레터나 거래목록 또는 거래내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LETSystem에서는 지역통화제도를 일종의 은행기능으로 보아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어주고 이를 관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LETSystem에서도 자기 지역 특유의 이름으로 지역통화명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추세에 있다.

## 2) LETS Scheme

LETS Scheme은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LETS Scheme은 지역적으로 의미있는 이름으로 화폐명을 지어서 시간의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여 거래가액을 정하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사용되는 지역거래체계를 말한다. 이 LETS Scheme에서는 시스템마다 모두 다른 이름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만들어 지역통화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를 한다. 계정은 컴퓨터상에서 정리되며 잔액이 0으로 하여 거래를 시작한다. 회원들은 주로 수표를 사용한다.

LETS Scheme의 일종으로 독일과 헝거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Talents는 영국의 주택조합(building society)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통장(pass book)을 사용하는데, 이 통장은 거래액을 기록해놓는 데 이용된다. 회원들은 운영센터 없이 상호 거래액을 통장에 적어놓으면서 거래한다. 회원들은 지역거래 네트워크에서 떠날 때 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놓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 나. 콘스탄트(Constant)

대공황기에 활발히 사용되다가 한동안 사용되지 않던 지역통화가 1972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엑스터(Exeter)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체경제학의 주창자인 랄프 보르소디(Ralph Borsodi)가 다우존스 평균주가지수와 유사한 지수로 30개 품목을 사용하여 만든 표준가격에 기초하여 Constants라는 지역통화를 발행하였다.<sup>4)</sup> 국가화폐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의 변동이 없다는 의미로 지역통화 이름을 Constants로 정했다. 30개 품목은 금, 은, 철, 알루미늄, 납, 동, 니켈, 주석, 아연, 석유, 밀, 보리, 쌀, 호밀, 귀리, 콩, 메밀, 양모, 목화, 코코아, 커피, 코프라, 가죽, 황마, 고무, 시멘트, 황산, 설탕, 땅콩 그리고 목화씨 등이다. 심화되는 인플레이션과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저항으로, 보르소디는 평가절하되는 법이 없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고 했다. 지방의 은행, 신문, 그리고 상인의 도움을

4) Dave Block, "Local Money Strengthens Communities", *In Business*, July/August 1998, p13. Barbara Brandt, *Whole Life Economics*,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5, pp169-170.

언어, 보르소디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임시지폐를 발행한 것이다. 최초의 콘스탄트는 1972년 6월 21일 보르소디와 슈마허 협회의 공동설립자인 로버트 스완이 공동 주최한 한 회의장에서 팔렸다. 이 수입금을 두 개의 지방은행에 예금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달 30개 품목의 가격을 계산하였으며, 은행들은 예금주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을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하였다. 이 콘스탄트는 인플레이에 대항하여 구매력을 보호하는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통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지역통화를 현금으로 다시 바꾼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 당시 나이 88세였던 보르소디가 노환으로 이 실험을 그만둘 때까지 약 1년간 사용된 바 있다.

#### 다. 델리 달러(Deli Dollar)<sup>5)</sup>

Constants 이후 미국에서의 지역통화 발전의 계기는 1989년 슈마허 협회의 본고장인 메사추세츠 주 그레이트 배링턴(Great Barrington)에서 일어났다. 이 마을의 한 조제식품판매점(delicatessen) 주인인 프랭크 토토리엘로(Frank Tortoriello)는 가게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4,500달러가 필요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여 가게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 다행히 프랭크는 슈마허 협회에서 SHARE(Self-Help Association for a Regional Economy)를 운영하고 있던 Susan Witt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Witt는 또한 1930년대 대공황기에 거래은행이 문을 닫아 은행에 있던 예금이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폐간 위기에 처한 메사추세츠 주 Springfield Union News라는 신문사가 스스로 지역통화를 발행하여 직원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살아남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신문사 직원들은 지역통화를 상점에서 사용하였으며, 상점주인들은 그 지역통화로 신문의 광고면을 샀다. 그리고 Witt는 또한 1977년 오레건 주의 Zoo-Zoo라는 식당이 프랭크와 비슷한 사정으로 문을 닫기에 이르렀을 때 지역통화를 발행하여 위기를 넘긴 사례도 알고 있었다.

이에 슈마허 협회는 프랭크가 Deli Dollar를 발행하는 데 조언을 하였다. 사실 이 슈마허 협회의 회장인 로버트 스완(Robert Swann)은 이전에 보르소디가 엑스터에서 지역통화 실험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델리 가게 주인은 10월달에, 1장에 10달러 가치를 가지는 델리 달러를 9달러에 팔고 한 장의 델리 달러로 가지고 향후 4개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새로 이전한 가게에서 손님들이 10달러 어치의 샌드위치를 살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랭크가 만든 500장의 델리 달러는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시간을 두고 상환하게 되는

5) Richard Douthwaite, Short Circuit - Strengthening Local Economics for Security in an Unstable World, Foxhole, Devon: Green Books, 1996, p139. Dave Block, op. cit. p13.

텔리 달러로 은행 부채 없이 그 가게는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확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4개월후에 회수되는 텔리 달러의 경우 연이자율로 따져 44%나 되고 10개월 후 회수되는 텔리 달러의 경우는 13.3%에 이르는 것이었으나 프랭크는 적어도 현금이 아니라 샌드위치로 이자를 내는 것이니 매우 싼 이자라고 생각하였다. 프랭크의 아들은 암에 걸려 있었고 프랭크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을주민들은 가게에서 프랭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였다. 이 텔리 달러는 이 마을에서 주민과 여러 기업에서 현금 대신 받아들여져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 지식에 의해 마을주민들은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텔리 달러의 성공으로 같은 마을에서 곧이어 다른 다섯개 가게가 비슷한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길거리 가게에서 팔고 있던 Dan 과 Martha Tawczynski는 프랭크의 식당에서 일하던 딸 J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텔리 달러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겨울철 온실 관리에 드는 난방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던 그들은 텔리 가게 손님들이 샌드위치 값을 미리 치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농작물에 대해서도 미리 값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 라. 농장지폐(Farm Note)

텔리 달러가 발행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을의 인근 길거리에 연접한 두 개의 농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이 두 농장의 주인들은 슈마허 협회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슈마허 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두 농장은 농민시장에서 사용되는 Berkshire Farm Preserve Notes를 발행하였다. 6월부터 10월에 걸쳐 서로 다른 일자에 이 농장 지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농장지폐는 두 농장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님들은 10달러짜리 이 농장지폐를 9달러를 주고 산 후 다음 해에 농장 지폐 1장당 10달러 어치의 농산품을 살 수 있다. 현금이 귀한 겨울 동안 약 8,000달러 어치의 농장지폐가 팔렸으며, 이 덕분에 농장은 이듬해 여름까지 버틸 수 있었다. 여름이 되어 손님들은 이 농장지폐로 신선한 농산품을 사게 되었다.

#### 마. 버크셰어(Berkshare)

1993년에 슈마허 협회는 Berkshire 마을 전체에서 향후 3년간 여름의 6주간만 통용되는 Berkshare라는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손님들은 이 지역통화시스템에 참여하는 가게에서 매 10달러어치의 물건을 살 때마다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1

Berkshare를 일종의 할인 쿠폰으로 받았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가게들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게당 150 달러를 내었다. 여름이 끝나는 9월의 3일간 손님들은 가게에서 버크세어를 물건값의 2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100달러 어치의 물건을 살 때 75달러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25달러는 할인 쿠폰으로 이전에 받아둔 버크세어를 내면 되는 것이다. 첫째해, 발행된 75,000 버크세어 중 28,000 버크세어가 회수되었다. 버크세어를 사용할 수 있는 3일간 마침 휴가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동네사람들에게 버크세어를 주기도 하였고, 상점 점원 앞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 버크세어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버크세어를 선심쓰듯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버크세어는 지난 몇 년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오래 남아 있다. 위의 텔리 달러와 이 버크세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역통화는 교육의 도구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바. 밸리 달러(Valley Dollar)<sup>6)</sup>

가난한 농촌주민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사추세츠 주의 프랭클린 군 지역사회 개발조합(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은 밸리 달러(Valley Dollar)라는 지역통화제도를 후원하기로 하였다. 이 시스템은 1991년 인근 Hampshire 군의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봉급수준이 낮은 기능직이나 사무직 여직원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프랭클린 군 지역사회개발조합이 개입했을 때인 1995년에는 회원이 70명 정도였다. 현재는 약 4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이고 약간의 식료품상, 기타 소매상,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 회사도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10달러 내지 20달러를 Valley Trade Commission(밸리 거래 위원회, VTC)에 내야 하고 25달러에 상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물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신규 가입자는 25달러에 상당하는 밸리 달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신규 회원은 1시간 가량 걸리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참가하면 추가적으로 25달러 상당의 밸리 달러를 지급받는다. VTC는 프랭클린 군과 햄프셔 군에 있는 개인과 기업회원의 목록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현재까지 약 6만 달러에 달하는 밸리 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VTC는 회원들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밸리 달러가 재사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회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게 봉사

6) Barbara Brandt, "Low-Income Groups Try Out Community Money Systems", *dollars and sense*, Mar/June 1999.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위원회가 강조하고 있지만, 회원 목록을 보면 마사지나 컴퓨터 인쇄 등 조금은 주민에게 생소한 거래도 많다. 이 제도의 책임자는, 달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회원이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되어야 하고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영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 이타카 아워즈

60개 이상의 북미 도시들에서 이타카 아워즈 방식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뉴욕주 이타카 시의 이타카 아워가 대표적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핫 스프링 시의 마운틴 마니(Mountain Money), 노바 스코티아 주 헬리팩스 시의 마리타임 아워즈(Maritime Hours), 캘리포니아 주 볼리나스의 샌드 달러(Sand Dollars), 산타 바바라의 Community Currency, 캔사스 시티의 Barter Bucks, 버클리의 Barter Network 등이 그것이다. 현재 아워즈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만 해도 40개에 이르고 있다.

생태적 경제학 연구에 보조금을 받은 이타카 아워즈의 창시자 폴 글로브(Paul Glover)는 고향인 이타카에서 지역통화를 발행하고자 결심했다. 그는 이타카 아워즈 시행 후 6개월 정도 되어 슈마허 협회에서 1주일간 지역통화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마을내에서의 거래를 강화하면 할수록 다른 곳으로부터의 물품 수송의 필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도 줄게 된다.

글로버는 90명의 회원으로 이타카 아워즈를 시작하였다. 이타카 아워즈의 기본이 되는 1아워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그 당시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였기 때문이었다. 이타카 아워즈는 이 지역통화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보너스로 주어지거나 지역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주어지거나 무이자 대출금으로 대출되기도 하였다. 거래액의 5%를 운영비로 제하는데, 이 금액은 화폐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된다. 아워 타운(Hour Town)이라는 격월간 발행되는 목록은 거래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다. 2 아워즈에서 1/8 아워즈에 이르는 5종의 화폐를 통해 총 66,000 달러의 지역통화가 발행되었다. 이타카 아워즈에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가게만도 466개에 이르고 있다. 참여가게는 은행, 극장, 보울링장, 헬스클럽, 식당, 농부, 목수, 전기장 그리고 병원 등 다양하다.

B&B 여관에서 아워즈를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루밤 한 방당 최대 2아워즈까지 여관비로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20%는 아워즈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다. 자전거나 자동차를 아워즈로 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사전에 예약을 하면 1시간당 1아워를 내고 아워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Hour Tour Guid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청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인데, 시정부는 앞으로 재산세를 이타카 아워즈로 납부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직원에게 봉급의 일부로 이타카 아워즈를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직원은 이 돈을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집세의 일부로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집주인은 이타카 아워즈를 재산세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집세로 이타카 아워즈를 받게 될 것이다. 이타카 아워즈 시스템은 대출도 해주고 있으며, 민간단체에게 기부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대안 연방 신용 연맹’에 거금 3,000 아워즈를 대출해주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54개 민간단체에 9,581달러어치의 아워즈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근년에 들어 한 병원이 이타카 아워즈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타카 건강 재단도 아워즈를 받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연체료 등을 아워즈로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66개의 아워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변종 아워즈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뉴올리언즈 주 한 공공주택단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Mo Money가 운영되고 있다. Hartsbrook School Scrip라는 지역통화제도는 학교간 할인 프로그램인데 학교후원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액면가로 지역통화를 구입한 뒤 지역 상점에서 5% 내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이 기금화되도록 한다.

이타카 아워즈 운영센터는 전체 발행된 화폐양 이외에는 특별히 거래내역 등을 기록해두지 않는다. 지역통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타카 시를 방문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타카 아워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아. 타임 달러

에드가 칸(Edgar Cahn)이 타임 달러라는 지역통화제도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는 달러와 같은 화폐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양로원의 필요를 줄여보자는 의도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 타임 달러 아이디어는 에드가 칸이 1980년에 그 자신 병원에 입원해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내버려졌다는 생각에 처참한 기분이 들면서 생겨났다. 젊은 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모두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려져 있다고 느낀 그는 사회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자 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그에게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자 그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일년간 영국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지역통화를 배운 후 귀국해서 그는 1986년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으로부터 1.2백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3년간, 마이애미, 세인트 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브루클린, 워싱턴 디

시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타임 달러 도입 연구를 시작하였다.

타임 달러는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이다.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1시간의 서비스 제공에 1타임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등록소에 등록하여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등록소의 주선으로 서비스를 주고받으면 거래내역이 자신의 계좌에 기록된다. 서비스를 해주고 번 타임 달러를 가지고 참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타임 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카고에서는 대학생이 어린학생에게 과외수업을 해주고 110시간을 모으면 재활용 컴퓨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현재 1000대의 PC를 대학생에게 주기에 이른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어린학생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음식을 구입하는데 타임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마이애미에서는 병원 서비스에 타임달러가 이용되고 있다. 타임 달러는 사회봉사제도와 관련된 일에 그 용도를 국한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면세조치를 받고 있다. MORE(Member Organized Resource Exchange) 타임 달러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10개 저소득 마을의 수천명의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초 조지 에벌(George Eberle) Grace Hill 사회복지관 대표에 의해 시작된 MORE 시스템은 인쇄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의 1시간은 당신의 1시간과 동일하다는 원칙하에 자동차 태워주기, 어린이 돌보기, 집안청소, 자동차 수리, 눈치우기, 과외수업 등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Grace Hill은 MORE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가게(Time Stor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간 가게는 헌옷, 장난감, 학용품 그리고 각종 중고 가전제품 등 각종 기부된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있다. 많은 물건들이 타임 달러 회원들이 내놓은 물건들이다. 시간가게에 있는 물건값은 타임 달러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확보하고 전시하는 데 들인 시간에 맞추어 매기고 있다. 이 시간가게에서는 타임 달러로만 물건을 살 수 있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져 곤란을 겪을 정도의 극빈자에게 이 시간 가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 비어(Wir)

국가화폐와 직접 연동되어 사용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 통화제도로 Wir가 있다. Wir는 Free Money 이론가인 Silvio Gesell에 의해 자극받아 1934년 Werner Zimmermann과 Paul Enz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Wir는 독일어로 우리라는 의미와 Wirtschaftsring(Business Circle)라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스위스 프랑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Wir는 7만개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하여 2,521백만 Wir의 거래 실적을 보였다. 회원은 현금 입금 후, 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받는데 이 신

용카드가 Wir이다.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1970년대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 소액의 이자를 붙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Wir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화폐제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6개 지역사무소 중 한 곳에 접촉하여 상담을 하면서 신용대출조건이나 담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스위스에서는 제1차 근저당은 물건 구입가격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는 담보는 주택이나 회사 건물에 대한 제2차 근저당이다. 최근 Wir 대출의 80% 이상은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대출신청서가 Wir 대출인증위원회로 보내지며, 이 위원회는 담보물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신용검사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신용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신청자에게 Wir 수표책과 신용카드, 그리고 참여 회사의 목록이 적힌 두툼한 카탈로그가 주어진다.

Wir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행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없다. 1994년 현재 보통예금 은행대출이자 2.5%인데 비해 수수료 격인 Wir 대출이자 1.75%이며 상환기간은 상담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대출인증위원회는 총 대출액을 연간 총거래액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모든 대출상환금은 참여회원기업간 재화와 서비스 거래로 받은 Wir로만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협동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이자 1.75%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기타 내야 할 수수료가 있는데, Wir 잡지 구독과 카탈로그 갱신을 위해 분기별로 11프랑과 발행된 수표 1장당 수표금액의 0.6%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데 이는 모두 Wir로 납부된다.

참여하는 회사들은 1994년의 카탈로그에 의하면 1853명의 건축가, 167명의 변호사, 18명의 굴뚝 청소부, 16명의 장의사 등이 있다. 한 거래에서 Wir와 현금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데 1995년부터는 한 신용카드로 Wir와 현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시 참여회원의 거래 품목의 현금과 Wir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0% 이상의 Wir를 받는 업체만이 공식 회원이 되어 위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현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공식 회원이 되어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즉 보통예금 대출이자 3.5%, 수표발행당 액면가의 1.2%를 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Wir가 아직 운영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모두 실패해서 지금은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는 이유는 담보물을 확보해 두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차. 우먼셰어(Womanshare)

Womanshare는 1991년 미국 뉴욕시에서 여성을 위한 서비스 교환 제도로써 생겼다. Womanshare의 창설자인 Diana McCourt와 Jane Wilson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목공예 품 및 요리 기술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러한 기술 교환에 매우 만족한 두 사람은 타임 달러 이야기를 들은 후, 이 기술교환을 좀 더 큰 네트워크에서 운영해보고자 하였다. 즉 뉴욕시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력도 키우고자 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수십명의 여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은 회원수를 60명으로 제한하였다. 회원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며, 독신녀뿐 아니라 가정주부, 직장을 가진 여성과 실업여성 등 다양하다.

회원간 접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시스템은 모든 회원들이 한 달에 적어도 네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에 이르러 회원들은 60가지 종류의 교습을 서로 주고 받았다. 기아변속 운전 기술과 컴퓨터 작업에서부터 태극권, 갈등해결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리고 직업 상담, 홍보기술, 말동무되기 등 약 130가지의 서비스가 교환되기도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 회원에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가진 훌륭한 기술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 4. 몇가지 쟁점

슈마허 협회 사무총장이며 지역통화 뉴스의 편집장인 수잔 위트(Susan Witt)는 지역통화 제도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운영요원의 부족을 들고 있다. 다른 실패요인으로 거래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회원 모두가 일정지역에서 대면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우리가 대안화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왜 가져야만 하는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대안화폐로서 지역통화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대안화폐로 인식되는 지역통화의 확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

에 지역통화에 참여한다. 또 어떤 사람은 현 지구경제시스템이 가지는 비도덕성과 불평등에 반기를 들고 보다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경제사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 혹자는 대안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자신의 능력을 켜히기 아까워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원봉사정신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재미로 또는 호기심에서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대안사회에의 꿈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러한 사회일 것이다.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왜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통화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철학적인 기반에 대하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경제적 동기를 들 수 있다. IMF 체제를 맞으면서 지역통화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실업자가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업구제책으로서보다는 자신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통화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둘째, 조직발전을 위해서다.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도입하였던 사내화폐제도는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많이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 및 봉급상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조직발전을 이루고자 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셋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의 경우 지역통화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의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차후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징검다리로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보전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 지역통화제도는 한 지역내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품의 이동에 따른 수송 에너지가 절약되고 서로 거래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자신이 사용한 지역화폐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한 화폐가 환경파괴적인 활동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지역통화는 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한다. 지역통화운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안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안공동체에서의 경제운영 시스템으로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개인적인 흥미 내지 관심 때문에 참여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라도 자신의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사람을 만나 인간의 정을 나누고 자원봉사정신으로 서로를 돕는 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역통화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지역통화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동기에서 경제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Wir 또는 Deli Dollar와 유사한 방식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 차원이라면 LETSystem이나 타임 달러도 좋을 것이다. 운영목적은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 통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통화제도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특정 지역통화체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통화의 교환수단으로 지폐를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특정 물건을 교환수단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를 만들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한편 지역통화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화폐(Alternative Money)인지 아니면 기존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완화폐(Complementary Money)인지 하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외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수입 없이 공동체 내부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특정 대안공동체의 경우 지역통화는 분명히 대안화폐가 될 수 있다. 지역통화로서 의식주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경제체제에서 공동체 외부와 교역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중화폐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역통화는 시중화폐가 가진 한계를 보충하는 보완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통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가 외부와 격리된 대안공동체가 아니므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지역통화(LETS, 교육통화, 기술도구은행, 품앗이 등등)는 대체적으로 대안화폐라기보다는 보완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관계를 포함하여 지역통화운동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통화가 만약 상업목적으로 이용된다면 현재로서는 현금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업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역통화 거래분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내국세 당국은 LETS는 제외하고 타임 달러의 경우 사회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거래에 따른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내국세 당국은 지역통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고, 최소화폐가치가 1달러 이상이며, 화폐가 연방 달러와 유사하지만 않다면

지역통화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고 있다.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화폐와 연동하여 지역통화의 가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전혀 무관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브라이튼 시에서 사용하는 지역통화인 Bright Exchange는 1시간의 지역통화 가치를 12 Bright Exchange로 정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시의 Ideal LETS는 1시간 노동가치를 20 Ideal로 정하고 있다.

## 5. 결론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유행했던 지역통화제도가 최근 전세계에서 다시 각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LETS는 지역통화의 일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에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클 린튼과 그 동료들은 현재 전자화폐인 Mondex와 유사한 전자지갑을 지역통화 거래방법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순히 LETS 시스템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수표도 발행하고, 지폐도 인쇄해보고 전자화폐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통화에 Share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지방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기술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역통화운동 추진의 의의이다.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공유하기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지역통화제도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개인정원, 자동차, 가전제품, 연장, 음식물, 개인적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모두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시대에서 지역경제를 온전하게 지키는 한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통화운동 관계자들은 그 목적과 지역 여건에 가장 알맞은 형태의 지역통화 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lock, Dave, 1998, "Local Money Strengthens Communities", *In Business*, July/August.
- Brandt, Barbara, 1999, "Low-Income Groups Try Out Community Money Systems", *Dollars and Sense*, May/June.
- Brandt, Barbara, 1995, *Whole Life Economics*,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 Danson, M. W. Danson, 1999, "The Other Side of the Coin: Local Curren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Regional Studies*, Vol. 33, No. 1.
- Douthwaite, Richard, 1996, *Short Circuit - Strengthening Local Economics for Security in an Unstable World*, Foxhole, Devon: Green Books.
- North, Peter, 2000, "The design defects of users created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Conference*, Stockholm, Sweden, June.
- North, Peter, 2000, "Is There Space for Organisation from Below within the UK Government's Action Zones? A Test of 'Collaborative Planning'", *Urban Studies*, Vol. 37, No. 8, pp1261-1278.
- North, Peter, 1999, "Explorations in heterotopia: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LETS) and the micropolitics of money and livelihoo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17, pp69-86.
- Williams, Colin C. , 2000, "Paving the 'Third Way'? Evaluating the Potential of LETS", *Town and Country Planning*, March.

##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이득연 | 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원

### 1. 지역통화운동의 여러 얼굴

지역운동의 다양한 형식들 가운데 하나로서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지역화폐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것의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 공동체운동으로서의 지역통화운동을 단일운동이 아닌 복합운동적 성격의 운동으로 이끌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역통화운동은 첫째,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내의 통화량을 증대시킨다. 통상적으로 지역내의 기존 화폐의 양은 희소하지만, 지역통화운동은 관례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사용되지 않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동원시킴으로써 지역내 가용 화폐의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내에서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기존 국가 화폐 거래에서는 지역 외부 소유 기업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富)가 지역경제 밖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내에서 교환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화폐가 지역내에서 머물러 순환하게 되고 이는 기하급수적 배가 효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부(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셋째, 지역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인다. 교환거래는 재화와 서비스 교환을 위한 새로운 자유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교환거래망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준다.

넷째, 지역내 수입대체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지역교환거래는 지역내 기업 활동을 고무시킴으로써 그동안 지역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재화나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역내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킨다. 지역통화운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교환거래를 통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전통적으로 무가치하다거나 저가치로 평가받았던 (경제)활동들의 가치를 재평가시킨다. 이를테면 전혀 시장가치를 인정받지 않거나 낮게 평가받는 아이돌보거나 말벗 해주기, 편지서식 대행과 같은 활동들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여 서로 교환거래한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품목들이 지역통화시장내에서 교환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환경과파괴적인 활동들을 억제시킨다. 지역내에서 교환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자원이나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교환거래 자체가 그냥 버리기 쉬운 것들을 재사용, 수선, 재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지역교환거래에 참여하는 거래 주체간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질적으로 고양킨다. 통상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상응하는 거래 주체로서 거래 품목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대면적 상황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즉,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나 판매자로서의 사람들과 구매자나 소비자로서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기존의 현금 거래에서와 같은 비인격적 관계에서 서로 대면하여 관계하는 인격적 관계로 대체시킨다.

지역화폐 또는 지역통화운동이 갖는 이러한 특성들은 지역통화운동의 복합운동적 특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에서의 다양한 운동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준다. 말하자면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운동이며 공동체운동이자 대안경제운동이며, 사회복지운동이기도 하고, 소비자운동이기도 하며, 또 환경운동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노동운동과도 이어질 수 있다.

## **2.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 **1) 교환거래 품목별 프로그램**

지역통화운동에서의 교환거래 품목은 특화되어 개별 품목만이 제공되는 형식에서부터 한 지역교환거래망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을 띌 수도 있다. 이는 지역통화운동의 공간이나 주도 집단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다.

## (1)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식생활은 생계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지역교환거래망 프로그램으로는 푸드뱅크(Food Bank)와 같은 무료음식 제공 프로그램을 지역화폐와 연계시켜서 사업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푸드뱅크는 원래 남은 식품을 수거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 및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 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체계의 하나로 푸드뱅크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1998년 현재 56개 지역에서 푸드뱅크가 활동중에 있다. 현재는 푸드뱅크 사업이 초장기여서 푸드뱅크의 수혜대상자는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이다. 하지만 향후 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저소득 계층들이 직접 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지역교환거래망과 푸드뱅크를 연계시키는 방식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력 제공으로 지역화폐를 벌고 이를 가지고 푸드뱅크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로 미국 워싱턴 D.C.의 타임달러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월 10 타임달러를 회비로 내는 대신, 지역내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월 4톤 물량의 음식을 제공받고 있다. 1997년에 이 지역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창출된 타임달러는 총 78,560 시간의 타임달러에 달한다.

한편으로 보면 이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던 것을 비록 지역화폐이긴 하지만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이나 식품의 제공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혜자들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수혜자들이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자활 능력과 의지를 키워 준다는 차원에서 일응 이같은 자조적(自助的)인 기제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내에 지역교환거래망이 구축되고 이 시스템내에 저소득층이 일정 비율로 회원 구성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비단 푸드뱅크만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 식품유통업체나 음식업체에 지역교환거래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화폐로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타카 아우어즈의 경우, 빵집, 식료품가게, 음식점, 농장, 유기농산물 가게 등이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하고 있어 회원들이 지역화폐로 필요한

식품 및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 (2) 생활용품 관련 프로그램

일반 개인 회원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개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 품목이 집중된다. 따라서 지역교환거래망내에서 생활용품을 비롯한 물품의 구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물품 공급 사업체가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업체가 직접 지역교환거래망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일반 회원이나 사업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생활용품의 유통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재활용센터, 녹색가게와 같은 재사용용품 취급점 등이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하여 지역화폐로 이들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외국의 경우 앞서의 푸드뱅크에서 식품 뿐 아니라 비누, 샴푸, 세제 등 일반 생활용품의 기탁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푸드뱅크가 활성화 되면 품목의 유형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앞서의 식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의 구입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 (3) 주거 생활 관련 프로그램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예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임차인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동 생산자와 협력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건설일용직 실업자들에게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일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에서는 타임달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주택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소유에도 지역화폐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일반 주택대부와 병행하여 지역화폐 주택대부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4) 교육 및 교습 관련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이나 실업자의 고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교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현금이 없어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지역교환거래망에서 교환거래를 통해 현금없이도 이러한 교육 및 교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방식은 기존의 교육 기관에 지역교환거래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 등록을 지역화폐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교환거래망 자체 내에서 이같은 교육 또는 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인 타임달러 네트워크(Main Time Dollar Network)는 포틀랜드 성인 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임달러 회원들은 이 강좌에 타임달러로 등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이 강좌에서 타임달러 회원들이 강사로 교육을 직접 맡거나 강의 조교 역할, 또는 강의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여 타임달러를 벌 수도 있다. 기술 교환 네트워크인 미국의 우먼쉐어(Womanshare)의 경우는 특정 회원의 특정 교육에 대한 수요를 거래망내에서 다른 회원들이 교육비 부담이라는 기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나중에 이 교육 수혜를 받은 회원이 다시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교습하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실업이나 저소득 상태에서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 역시도 지역교환거래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 타임달러 시스템을 고등교육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면 실업자나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학내 교과 과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 코스를 이수하면서 지역사회 조직에서 일을 하고 타임달러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차후 대학내 교육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한 예로서, 미국 뉴욕주 오니온타(Oneonta)의 하트윅 대학(Hartwick College)의 경우 이 타임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1인당 타임달러로 최대 1,000달러를 벌면서 서비스 학습 기회를 가지고, 자원자가 필요한 지역사회 조직에서 봉사도 하는 한편, 자신은 가치있는 삶의 기술도 익히면서 이렇게 번 타임달러로 교육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5) 육아보육 관련 프로그램

실업이나 저소득 상태에서의 자녀의 육아보육비 지출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가장 실업자의 경우 육아보육 문제야말로 구직 기간이나 취업 이후 상황에서도 난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 대안교육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탁아(협동)조합에 지역교환거래망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육아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을 육아회원으로 가입시켜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1회 직접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시키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한 형태로 육아보육이 회원들 사이에서 교환거래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다 확대된 지역교환거래망의 한 부분으로 이 육아보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한 방식이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육아보육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 시도가 있다. 영국의 남서 웨일즈(south-west Wales)의 하버포드웨스트(Haverfordwest)의 레즈 그룹은 부모들이 아이들 보육을 제공하는 대가로 벌어들인 레즈내의 지역화폐로 보육료의 80%를 지불하는 식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 (6) 의료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실업이나 저소득 상태에서의 의료비 지출은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지역교환거래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부담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지역교환거래망의 회원들 사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상호 교환거래하는 방법과 지역내 의료기관들에 지역교환거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미국 이타카 아우어즈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이타카 아우어즈에서는 이타카 건강기금(Ithaca Health Fund)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간의 비영리목적의 상호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기금은 25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연 회비로 부부 175달러, 성인 100달러, 아동 50달러를 받고 있으며, 이 회비의 25%를 아우어즈로 낼 수 있다. 대신 의료비의 10% 이상의 할인 혜택에 비용 지급을 지역화폐인 아우어즈로 지불할 수 있다. 또 건강기금은 회원들에게 긴급처치에 최고 400달러, 엠블런스 이용에 최고 400달러, 치아 근관(root canal) 처치에 최고 200달러를 지급한다. 이 기금에는 132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목록이 이타카 아우어즈의 디렉토리인 아우어 타운에 게재되어 있다. 현재 기금의 전체 참여 회원은 이들 132개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일반회원 194명, 지원사업체 8개 등 총 334명이며, 1999년 10월 현재 이타카 건강기금의 총규모는 44,114달러이다.

위의 방법은 지역교환거래망의 규모나 활동성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가능한 방법이다. 적어도 의료서비스 자체를 교환거래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환거래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참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타카 건강기금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특정 분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지역내 의료기관들에 지역교환거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가능만 하다면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만큼 지역교환거래망의 규모나 활동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나 지역사회의 행정당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로 된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지역교환거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이 방식의 예로는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역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한 사회의료기관은 10여년 동안 노인들에게 의료비의 25%를 다른 노인들을 돕는 지역교환거래망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번 타임달러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 교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지역교환거래망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수요들을 충족시키면서 지역화폐가 현금으로서의 교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약 소비계층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비용지출을 덜 수 있다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서비스 부문도 지역교환거래망내에서 포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교통 수단 일체를 지역화폐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이타카 아우어즈의 경우는 택시 이용도 이타카머니로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는 일반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 이용에서 지역교환거래망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 대중 교통수단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분포 또한 여러 지역에 걸쳐 산재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교통서비스 부문을 지역교환거래망에서 수용한다면, 지역내의 짧은 거리간 교통수단인 지역마을버스의 운영이 무난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환거래망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지역교환거래망의 운영주체가 (중고)승합차를 지역화폐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지역 순환노선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지역내 주민

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되, 그 이용요금을 지역화폐로 받는 것이다. 과거 학생들의 버스 회수권처럼 이용 편이를 위해 이용요금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이나 토큰으로 낼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교환거래망의 자족성을 위해서 이 마을버스의 운전기사 역시 이 일을 통해 지역화폐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승합차를 휴지(休止) 시간대에 개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2) 교환거래 주체 특성별 프로그램

### (1) 노인

노인은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계층이다. 즉,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다. 저소득층 노인은 생계문제 뿐 아니라 건강문제,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업 상황은 노인 실업자 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상황에서 볼 때 지역교환거래망은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교환거래망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며, 가능한 일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는 그 신체적 한계상 젊은이들처럼 하루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동하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의 일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상의 단순한 일거리로부터 아주 특이한 일거리까지 광범위한 일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령자들이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하여 자신이 평생동안 일하고 개발해 온 기술을 활용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을 하여 지역화폐를 벌고, 그렇게 번 지역화폐를 자신의 체력에 부치는 힘든 일을 대신하도록 젊은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다면, 고령자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내 교환거래를 통해 개인 대 개인간의 상호교류는 노인 및 퇴직자들에게 사람을 사귄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 지역사회 부양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교환거래망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별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거래량의 일정 비율을 따로 뽑아내 이를 가지고 이들 지원 대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컨대 레츠의 경우

에 지원레츠(LETSupport) 형태로 운영하는 예가 바로 그러한 방식의 보기이다. 이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지역교환거래망이 구축되어 교환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 쌍방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거래량의 일정 비율을 노인들을 위해 설치한 노인계정에 이전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노인부양을 강화할 수 있다.

## (2) 여성

지역교환거래망의 운영 주체로서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시스템을 조직화할 수도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임달러 시스템의 일종인 우먼쉐어(Womanshare)가 대표적이다. 우먼쉐어는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기술 교환 시스템(skills exchange system)이다. 1991년에 12명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들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조직의 결성자였던 다이아나 맥코트(Diana McCourt)와 제인 윌슨(Jane Wilson)은 애초에 목공예 기술과 요리 기술을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식으로 비공식적인 교환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타임달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공식화시켜 보다 큰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게 된 것이 우먼쉐어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회원으로 규합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지역내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회원 확대를 꾀하였다.

우먼쉐어의 회원들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독신여성이나 주부, 또는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등 다양한 배경과 처지에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먼쉐어는 회원들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매달 적어도 4시간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 활동을 보면 1993년의 경우 회원들은 60여 가지의 교습, 130여 가지 서비스를 서로 주고 받았다. 타임달러뱅크라 할 수 있는 우먼쉐어뱅크를 중심으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200여개의 기술들을 서로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 (3) 실업자

실업자의 경우 실업이라는 특수 상황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교환거래망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입장은 못된다. 오히려 지역교환거래망내에 취업자들이 일정 비율을 구성하고 있을 때 소기의 교환거래 성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생계 유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일반

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자라 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없다. 앞서 기술한 지역교환거래망에서 교환거래되는 품목의 다양한 제공을 통해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적으로 실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원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만큼 부가적 소득원 제공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교환거래망을 통해서 실업자에게 부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교환거래망내에서의 교환거래시 일정 비율의 현금 병행 교환거래 방식을 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역교환거래망을 통해서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물품 및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부가적인 소득 효과를 꾀할 수도 있다.

지역교환거래망에서의 교환거래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교환거래망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나, 회원에 따라서는 현금과 지역화폐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원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의 당사자가 현금 50%, 지역화폐 50%로 거래를 원할 수 있다. 이 현금 병행 교환거래 방식은 지역교환거래망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생활의 전반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다양하지 못할 때, 기존의 현금이 갖는 교환성과 환물성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거래 성사시 거래 제공자는 현금 비율만큼의 부가적 소득을 얻게 된다.

지역교환거래망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물품 및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여 교환거래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부가적 소득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지역교환거래망을 활용할 경우, 수요는 있지만 기존 시장에서 현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화폐를 얻고 이를 다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인 소득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실직 상태여서 비록 취업을 통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지역교환거래망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화폐 수입을 통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들, 예컨대 집보기, 말벗, 동식물 돌보기, 편지 서식 대행, 시장보기, 병원같이 가기 등 다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지역화폐를 벌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역교환거래망내에서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지역교환거래망을 통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교환거래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한 지역의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체에서의 구인 수요를 지역교환거래망 회

원들의 구직 수요와 연결시켜서 실업자의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인 수요업체에서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써 직접적인 현금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반대로 구직 실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으로 지역화폐와 함께 일정 비율의 현금을 받고 취업할 수 있어 양측이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의 고용은 특히 시간제 근무나 재택근무 방식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며, 지역교환거래망의 구축 정도나 형태에 따라서는 상시근무 방식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내의 일반 기업에서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공익서비스 분야에도 이같은 방식의 고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교환거래망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지역교환거래망내에 고용 지원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교환거래망의 운영시스템을 지역사회내에서 일종의 관리정보체계로 활용하여, 앞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체계, 새로운 기술, 취업 준비, 근로 능력 개발, 지역사회의 서비스 확보 등을 위한 사회적 유인 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즉, 전략적으로 최소임금에 이르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독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업자의 취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도 지역교환거래망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다. 실업자의 취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직업 훈련 교습 프로그램 운영을 들 수 있다. 지역교환거래망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은 일반적으로 개인교습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역내 특정 직업훈련 기관이나 기술학교, 사회교육원과 지역교환거래망을 서로 결합시켜서 운영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 교습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취업 교육이나 기타 교양 교육에서 타임달러를 비롯한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수강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형태이다.

#### (4) 청소년

청소년의 경우는 독자적인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의 교환거래망에 독자적인 거래 주체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아이돌보거나 놀아주기, 집보기, 저급 학생 공부 가르치기, 청소, 동식물 돌보기 등이 그 보기이다. 지역교환거래망이 지역내에 구축되면 이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화폐를 벌고 이를 책이나 생활용품 등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지역교환거래망의 교환거래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학교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각급 학교 차원에서 지역교환거래망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교육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일례로 초등학교에서 타임달러와 연계된 상호교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상호교습 프로그램은 학생들끼리 서로 각자가 잘하는 과목을 동료나 후배 학생들에게 교습하도록 함으로써, 가르쳐 주는 학생은 타임달러를 벌고 이를 가지고 나중에 재사용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 미국 시카고의 공립학교의 예를 보면 상호교습 프로그램(Cross Age Peer Tutoring Program)을 운영하여 26주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400여명이 참여하여 타임달러를 벌고 컴퓨터를 구입한 바 있다.

### 3. 지역통화운동의 가능성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통화운동의 잠재력이 이상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된 사례들을 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싹들이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교환거래망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성되고 나서 오래지 않아 해체되는 예도 있고, 해체는 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교환거래 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약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아예 유명무실한 예도 있다. 이같은 성공과 실패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거래망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운영집단의 노력 및 이에 대한 회원들의 조응 여부 등 여러 변인들이 작용한다.

일부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몇몇 지역교환거래망들이 국내에서 조직되어 운영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환거래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지역교환거래망에 참여한 회원이나 일반인들의 의식이나 태도 차원에서 보면 지역교환거래망의 구축에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터넷에 물물교환사이트(스왑세븐, 우가우가 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역교환거래망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들이 나름대로 치밀한 기획과 홍보, 조직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통화운동의 전망과 과제

곽형모 | 미내사클럽

### 1. 지역통화운동의 경과

지역통화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통화운동 주체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준비 정도, 한국시민사회 전반의 준비 정도 등을 읽어낸다면 과제가 나올 것이요, 자연스럽게 전망도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운영자들이 지역통화를 처음 접했던 자세, 인식, 객관적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98년 1월이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IMF 구제금융 위기라는 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가 갖는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금융산업,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려는 케인즈적 시도의 좌절을 의미한다. 정리하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불황의 원인이었으니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IMF와 WTO는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특히 IMF체제는 채권국가들과 채권은행들의 이해에 따라서 채무국가들을 국제적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연계시킴으로써 채무국가들의 경제를 채무상황에 맞추어서 국제적 채권·채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IMF는 서구국가들의 금융자산 소유자들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

게 된 것이다. 채무국가들의 경제를 강제로 수출주도로 바꾸게 만들고 사회보장제도의 철폐를 통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인 데서 생긴 돈으로 외채를 갚게 한다. IMF는 자금을 지원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강요한다. 그 핵심적인 것이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에는 임금삭감이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사회보장 지출 삭감, 각종 보조금 삭감(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포함), 환율의 평가절하 및 고이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응하기 힘든 중장년층 실업자들은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자들로 전락한다. 분명히 노동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사장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이에 대한 일정 정도의 답을 지역통화 시스템에서 얻으려고 했다.

둘째, 90년대 이후 새로운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요구되었다. 80년대에 이어 90년대 초반까지의 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을 바꾸는 투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종전의 운동은 거대 권력 즉, 자원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투쟁이었고 당연히 역관계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래사회의 운동은 권력의 속성 즉,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제도와 인간, 이데올로기와 인간 등 제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억압구조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의 영역도 여성, 인권, 평화, 교육, 환경, 문화, 청소년, 복지, 육아, 공동체 등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봉건적, 수직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획득이 아닌 새로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통화 시스템은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통화 시스템의 특성이 수평적 관계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하는 시민운동의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셋째, 미래형 공동체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요구되었다. 현재 지역통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상당수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품앗이나 두레 전통에 대한 기대, 다소 정서적인 동질감 형성을 피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렇게 지역공동체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일꾼들에게나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가장 손쉬운 접근 방식으로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사실 두레나 품앗이는 폐쇄적이고 미분화된 농업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부락공동체에서는 혈연, 지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거주 이동, 직업 변동,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제 이름도 잘 모르는 이질적인 개인들이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시민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역품앗이를 복원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의 품앗

이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노동력, 서비스, 관심, 정서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시민으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이러한 관계를 실생활 속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다.

지난 3년 동안 지역통화 운영자들이 경험했던 과정은 한국사회가 자기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운영자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던 동기나, 경험 과정은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장애물, 과제의 일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축소판이기도 했다. 사실 지역통화운동이 품앗이라고 하는 전통적 기반 위에 선 것이라고 하나 그 운영 방법은 20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개발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구의 경제적, 문화 조건에서 탄생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역통화 시스템은 수입품이다. 그래서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지역통화 시스템이라는 사회 운영 도구의 성격과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조건에 대한 분석이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구의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지역통화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 지역통화운동은 작지만 큰 것을 지향한다**

지역통화는 속성상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시에 추구한다. 지역통화가 법화와 비교해서 갖는 약점 중의 하나는 대중 과급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것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의 통일(국민국가, 민족국가의 탄생) 과정과 화폐의 통일과정이 같다는 것은 법화와 권력의 관계를 잘 대변한다. 화폐의 통일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에 비해 지역통화 시스템은 하나로써 거대한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누기를 지향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고립을 경계하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일정한 자기 완결성, 자립적 구조를 지향한다. 시 단위에서 구 단위로,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쪼개지는 것을 지향한다. 물론 네트워크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지역통화운동에는 어떠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사실 거대 콤플렉스는 한국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바탕이 아니라 ‘근대화’의 산물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추구했던 근대화의 표적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였다. 우리의 근대화 일꾼들은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빠르게 내다 팔아야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필요로 했다. 우리에게 근대화 인간상은 대량생산체제에 맞게 표준화된 인간상이었다. 우리에게 엘리트란 머리 속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집어넣은 사람이었다.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미덕은 ‘세계 제일’, ‘동양에서 가장 큰...’이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아들인 서구의 합리주의, 즉 뉴턴식 사고로 보자면 부분의 집합은 곧 전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부분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뉴턴-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사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부분들이 질서정연하게 합쳐져서 전체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부분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전체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융합보다는 자기주장, 종합보다는 분석, 협동보다는 경쟁, 직관적 지혜보다는 합리적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아니 20세기 초반에 이미 과학적으로는 세상은 각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가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질을 뚫고 들어가 보면 볼수록 자연은 어떤 독립된 기본적인 구성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있는 복잡한 그 물의 관계라는 것이 드러났다. 각 부분을 합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 세계는 부분과 전체가 살이 숨쉬는 전일적 체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지역통화 시스템이 처한 현실은 대량생산체제가 또다시 신자유주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삶의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향한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역통화운동은 이러한 두 개의 움직임에 동시에 대응한다. 즉, 작은 것을 지향하되 네트워크의 힘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추구한다. 작은 것이 가진 효율성, 창의력, 자기내포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전일적인 세계관을 추구한다. 물론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작은 것의 한계, 고립성, 비효율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운영자들의 몫이다.

#### **\* 시민이 주인되는 자활적 복지공동체**

지역통화운동은 원리상으로만 보자면 잘 ‘쓰는’ 운동이다. 어떻게 하면 자원을 효과적으

로 배분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통화운동은 단지 소모성의 소비가 아니라 엄연한 생산적 기능을 가진다.

국가 통화는 희소성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를 왜곡시킨다. 노동이 필요로 되는 욕구와 제공 가능한 노동력은 많지만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이렇게 왜곡된 노동 시스템을 재편성하고 바로 펴는 기능을 가진다. 즉,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따라서 지역통화 시스템은 가치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왔던 것도 가치를 재평가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 읽어 주기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품화되지 않는 것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감으로써 가치를 재평가 받는다. 이렇게 재구성된 가치 개념은 생산에 재투여 되고 순환된다.

시민은 이러한 순환의 중심에 위치한다. 시민은 이러한 순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치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통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주인이 된다.

#### **\* 지역통화운동은 새로운 ‘관계’를 지향한다**

대체로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가 개개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면서 계약사회를 유지하려는 것과는 달리 동양사회의 유교적 덕목은 개개인들의 타산적 이해관계의 고려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화합과 안녕을 추구한다.

17세기이래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하여 (서로 갈취하는) 늑대로 여겨졌다. 그것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위기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개개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 타인들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의 체결을 통한 ‘국가’라는 정치적 제도가 필요했다. 요컨대, 국가나 사회의 기능은,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리의 확보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인이 만인에 대한 경쟁관계에서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 개개인들의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권리의 획득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서로 경쟁관계에 서있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언제나 사회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요, 사회조직의 필요는 항상 개인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려는 합리적인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는 달랐다. 유교사회의 이상은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있었다. 그

리고 당시에 인간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발전은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 이해타산의 관계를 넘어서는 - 순수한 사랑과 협동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주위의 이웃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일이었다. 유교 덕목 중에 가족주의적인 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엘리트들인 지식인-관료들에게는 될수록 자기의 사욕을 억누르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양이 강도 높게 요구되었다. 맹자의 말대로, 정신노동을 하는 대인(大人)과 육체노동을 하는 소인(小人)은 서로 사회분업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대인은 소인의 생산활동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또한 생산에 종사하는 소인들 또한 그들을 지도해주는 대인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엘리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배움과 반성적 사유가 강조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덕의 윤리는 결국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가 실현해 내야 할 역할을 통해서 규정해내는 일종의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교사상은 이런 사회적인 상하의 차등적 인간관계를 전제하고 이런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지식인의 도덕성의 함양에서 찾으려는 일종의 도덕적, 목적론적 세계관이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이란 자기인격을 계발시킬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을 닦아나가는, 즉 수기(修己)의 과정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인격을 갖춘 리더로서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지도 계발해줌으로써,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갈등을 될수록 조화와 화합의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역통화 시스템은 어떠한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지역통화 사용자는 물신화된 화폐가 아닌 ‘구체적’ 노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익명성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또한 지역통화 사용자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채권자와 채무자,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지만 계약적 관계 이상을 유지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가 합리적 노동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추상적 보편적으로만 연결, 조직, 운용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관계는 생산수단 즉, 자본의 물질적(물량적)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산(사회)활동은 자본의 끊임없는 확대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의 모든 상하 신분관계와 그와 관련된 윤리적 가치관념은 점차 의미를 잃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인간이 종래의 신분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법률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자본주의 이러한 긍정적 발전적 측면을 충분히 흡수하려고 한다.

한편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정은 개개인의 특수한 자질과 취미를 충분히 고려함

이 없이 오직 추상적 물량적인 범주에서 합리적, 수단적으로만 조작된다. 이렇게 인위적 합리적 조작으로 인하여 인간노동이 전문적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이상)를 객관적으로 실현해나가는 - 말하자면 자연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가공해나가는 - 자기 본연의 삶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소외현상은 또한 이 생산활동이 화폐라는 가장 보편적인 유통 및 축적 수단을 통하여 진행됨으로써 더욱 더 심각해진다. 이제 전통적인 권위와 목적론적인 질서의식을 상실하고 오직 자본주의사회의 끊임없는 이윤추구의 역동성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품위)와 자유, 즉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기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거의 차단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활세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소외되어 가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하버마스)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통화 시스템은 고래의 수직적, 차등적 인간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일정한 목적론적 세계관에 끼워 맞춘 대동사회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성, 이질성, 우연, 단절, 차이의 작용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약적 관계라는 것은 독립적 개인들이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효과적으로 계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율성의 철학적 기반은 부르주아 주체관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자유로운 개인’이며, 이런 개인은 자유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위험과 책임을 감당하는 개인이다. 부르주아 세력이 주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상대적 우위에 서자면 모든 개인은 책임있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가상, 즉 개인은 법적 주체라는 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호간의 이익 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규범이다.

문제는 이때의 관계란 분절적 개인의 연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계약적 인간관계가 갖는 한계 및 노동과정의 추상성을 극복하려 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개인은 소외가 아닌 주인된 인간으로 노동과정에 참여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개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일련의 관계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으면...’이라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이 보는 자아 정체성은 진공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지역통화 시스

템은 선부른 ‘통합’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행해지는 끝없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하는 비전을 지향한다

#### **\* 품앗이 전통의 복원과 지역통화운동**

품앗이 전통의 복원은 가능한가? 단지 서로 남는 것을 나누는 의미라면 품앗이 전통은 이미 매우 창조적인 형태로 복원되고 있다. 품앗이는 영농품앗이, 관혼상제 품앗이, 김장 품앗이 등 전통적인 품앗이 외에도 배움품앗이, 과외품앗이, 자원봉사 품앗이, 공동육아 품앗이, 유학품앗이, 음식품앗이, 여행 품앗이, 여성품앗이, 공동구매 품앗이, 인터넷농장 품앗이(아담웍스 Adamworks), 품앗이 놀이방, 직원간 업무품앗이(기업들의 감량경영으로 인력이 모자라자 부서끼리 서로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간 품앗이), 품앗이 공연(아마추어 연주자들은 공짜 휴가와 무대진출 기회를 얻고 레저업체는 싼값에 알찬 공연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제공), 창업 품앗이(소자본 창업 정보 공유) 등 현대인들의 생활 조건에 맞게 실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품앗이를 운영하는 주체도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생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잠재력이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품앗이 유형은 대부분 일정한 연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통화 시스템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극도의 이질적인 관계,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 정착하여야 하는 지역통화 시스템과 지연, 혈연, 기타 다양한 연고를 기반으로 한 품앗이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통화 시스템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역통화운동은 품앗이가 호응을 얻고 있는 사회적 조건 위에 서야 하며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폐쇄적인 틀 안에서의 품앗이라 하더라도 부락공동체 시절의 품앗이가 산업화 물결을 타고 없어졌다가 다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조건들은 분명히 주목할만한 대상이다. 이것은 곧 자생적 수요에 조응할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 시스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생활적 요구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신자유주의적 환경과 지역통화운동**

최근 소비구조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여 나

갔던 IMF식 소비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또다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적신 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소비자들은 의류비, 레저 여가비, 품위유지비, 의식비, 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결혼시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전, 홈 인테리어 등 혼수품 판매가 저조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내구소비재의 교환시기를 그만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바퀴가 쓰러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통화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축적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축적을 위한 소비이다. 자본주의는 축적의 경제 시스템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이에 대해 유통으로 대답한다.

구제금융 위기 당시 IMF와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찾았다. 제대로 된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도 거의 예외없이 왜곡된 금융구조와 과잉투자 등 내부적 요인과 투기적 자본의 단기이동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해 현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위기극복의 기본방향도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축적 중심의 경제시스템이 갖는 맹점이다. 자본은 사적이다. 그리고 이윤동기에 의해 추동된다. 그래서 이윤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생산에 투입하고 생산물을 소비시킬 노동력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요구 수준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 왕성한 자본 축적의 황금기를 거친 자본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지 않으며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본은 축적에 심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애당초부터 그 지배를 무단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속에서만 유지되는 생산 양식인데 그 확대와 강화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한때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특효약으로 여겨졌던 케인즈주의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구는 80년대 들어 금융자본을 앞세워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비타협적으로 유연화-착취를 강요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확대,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IMF식 경제로 나타났다.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지역통화 시스템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우연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축적 경제의 시스템의 맹점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상적 개별적인 것은 역사적 순간의 영향을 받아 진화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경제과정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오로지 이 개별적인 것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원리에 관해서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경제정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배적 결과를 수정하거나 어떤 모델에 따라 사회질서를 개혁하려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은 질서정책이어야 한다면 그 정책은 원칙의 실현이고 그 원칙은 구성적 원칙이다. 왜냐하면 구성적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의 실현이고 그 가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는 동시에 질서를 야기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규제 철폐)만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정부나 권력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절대 자유가 맹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자유지상주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지역통화 시스템은 자본의 ‘자유’와 완전경쟁 못지 않게 의사결정 과정과 형식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또 그것이 효율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지역통화 시스템은 정치적, 법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공간에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지역통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이다.

### 3.지역통화운동의 과제 및 전망

#### \* 지역통화 시스템과 두레의 정착 과정

지역통화운동은 시민운동가들에게 일정 정도 매력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적어도 원리상으로만 보자면 지역통화 시스템은 무규범성, 게임규칙의 실종, 파벌주의, 배타성 등 한국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역통화운동은 고래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원시공동체 이후 농업사회를 거치면서 수천년 동안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틀의 기능을 해왔던 두레나 품앗이는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협동노동체제로서, 하나의 문화로

서 자리잡은 것이었다. 이것이 두레와 지역통화 시스템의 다른 점이다. 두레의 정착 과정은 자연에 대응하면서 인간이 생산력을 발전시켜 온 과정과 일치하였다. 줄여서 말하자면 두레와 품앗이는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응’으로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다듬어지긴 했지만 역사의 합법칙적인 발전과정이었다.

마찬가지로 지역통화 시스템이 사회운영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두레나 품앗이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회변화 과정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통화 시스템은 ○○○의 대안으로서만이 아니라 먼저 ○○○의 대응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즉, 무언가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시민들의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품의 교환은 상대적으로 물품 거래보다 어렵다. 그렇다면 반드시 ‘품앗이’성 교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인터넷 동호회와 연결하여 중고 생활용품을 지역통화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지역통화운동의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단위 지역통화 시스템 운영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첫째, 회원 증가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거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둘째, 거래 빈도가 낮다. 거래 접촉건수가 낮고 결과적으로 지역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셋째, 전문 관리자가 부족하다. 지역통화운동을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통화 시스템의 ‘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과거에 생활협동조합이 겪었던 어려움과도 유사하다. 즉, 생산지 생협의 조합원인 유기농가수 증가율의 정체, 유기농산물의 판로 부족, 인건비나 물류비용 등 관리비의 부담, 소비자 생협의 경우 조합원 수나 매출액 규모의 영세성 등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생협들이 해체되었고 그 이유는 경영실패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사업만 존재하였고 ‘조합원이 중심’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면 지역통화운동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이다. 즉,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지역의 단지화, 소비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효율 제고, 소규모 생협을 통합하여 분할된 유기농산물 시장을 규모화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생협이 경제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듯이 지역통화 시스템의 경우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계점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지역통화운

동을 새로이 준비하는 곳이나 기존의 시스템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임계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큰 관심사는 회원수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회원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역통화의 유통(거래, 물류)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집중성, 즉 소단위화로 해결할 문제이다. 즉, 반드시 정규화된 규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단위 지역(동단위)에 집중하거나 특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생협 조합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내용 중에 '생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결과 상당수의 조합원이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단체라는 답을 하였다고 한다. 생협이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생활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통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각 단위 시스템들이 다종다양한 기능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공자, 수용자 모두 지역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규모에 집착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즉, 회원들에게 품목의 다양성을 인식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래를 요청하면 반드시 된다는 실례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공자의 기능에 대한 부단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의의는 단지 나눠 쓰는 경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통화운동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고립된 '쓰기'에서 문을 트자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립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은 끊임없는 '관계 트기'를 통해서 자기를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화폐를 쌓아두기만 하는 수전노는 자본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역통화운동의 '관계 트기'는 세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시스템 운영자와 회원들간의 관계를 터야 한다. 이미 현재 각 시스템 단위가 운영자와 회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수단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운영자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둘째, 회원과 회원의 관계를 터야 한다. 거래의 안정성은 회원과 회원의 신뢰관계가 형성

될 때 가능하다. 실용성으로 따지자면 지역통화가 법화의 즉시성, 다양한 용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사실 지역통화는 막강한 증식 수단인 법화와 비교하자면 매력을 끝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지역통화의 존재 의미는 회원과 회원의 부단한 의사소통을 통한 거래의 안정성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지역통화 시스템 각 단위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각 단위 시스템이 가능한 한 작은 것을 추구하고 소단위 지역 내에 자기 완결성, 자기 내포성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립된 지역공동체란 불가능하다. 각 단위 시스템간의 관계를 회원중심으로 사고한다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시대에는 소단위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터넷 시대에는 만족할만한 거래라면 거리나 시간을 뛰어넘어 가까이에 있는 회원뿐만 아니라, 먼 곳에 회원도 서비스나 물품 거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현재의 지역통화 운동은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보교류는 필수적이다.

공동체는 공유된 실천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의미, 의미의 획득과 관련된 공유된 일상적 행위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목가성이나 지역성은 자칫 폐쇄성, 배타성으로 왜곡되기 쉽다.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란 일정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지니는 정태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보다는 타집단들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통화도 자기 완결적, 자립적 구조를 기초로 하여 끊임없이 타집단과 교류하려는 시도, 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인천에서 시도되고 있는 웹상의 시스템 공유 프로그램 제작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 **\* 지역통화 시스템을 확대할 계기와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서구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 않는다. 인쇄술은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서구의 15세기에 인쇄술이 끼친 영향은 차원이 달랐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은 한정된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대중과 만나게 되었다. 특히 성서의 경우에는 인쇄술과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 과거 교회 안에서 소수의 성직자들이나 읽던 성서가 대중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읽으려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서의 번역이 필요했다. 성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나중에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된다. 더욱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자국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심화되기 시작하고 민

족(국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번역문화, 자국어, 종교개혁, 민족의식, 나아가 근대화라는 소프트웨어가 인쇄술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나서 꽃피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쇄술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통화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와 만날 것인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이든, 인터넷이든 중요한 것은 지역통화 시스템이 타고 나갈 하드웨어의 절박함이다. 그리고 그 핵심 고리를 잡아내는 것은 운영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송파품앗이

■ 단체명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송파품앗이

담당자 : 문수지

전화번호 02)2202-2351

전송번호 02)2202-1104

E-mail : moon@songpa.seoul.kr

■ 지역화폐 명칭: SM (송파머니)

■ 회원수: 208명

■ 회원의 연령대 (많은 순으로 나열) : ① 40대 ② 30대 ③ 50대 ④ 20대 ⑤ 60대 이상

■ 성에 따른 비율 : 남자 30 %, 여자 70 %

■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 : 40대-30대-50대-20대-60대

■ 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시기: 1999년 5월

■ 본 단체의 지역화폐 목표와 의의

### 1. 사업 도입 배경

1999년도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직 또는 일거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부담이 되며, 이들에게는 당분간만이라도 자원봉사활동보다는 생활지원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됨. 한편 1998년 10월 성공회대학교에서 ‘국제노인의 날’기념으로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서의 ‘지역내교환제도’개념을 접하면서 송파구 지역에서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짐. 이에 1999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내교환제도를 활용한 자원봉사자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응모하여, 사업비 12,000,000원을 지원받았으며,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 8,000,000원을 지원받아 운영중임.

### 2. 사업목적

지역주민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내교환제도: LETS」를 송파지역내에서 시범운영하여, 도시지역에서 확대적용할 수 있는 LETS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3. 사업 목표

- 1) 지역내교환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대도시 지역사회에 적합한 LETS 모형개발
- 2) 지역내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영리기관·단체와 일반가정으로 자원봉사활동처 확대 및 지역내 자원봉사자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
- 3) 품앗이 서비스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 세부사업명                              | 사업일시                  | 사업내용                                                                                                                                       | 사업결과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설명회 개최  | '99. 7.15.            | □ 인원 100명                                                                                                                                  | ·송파품앗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함<br>·잠재적회원을 거래 참여로 유도<br>·회원의 참여에 대한 자긍심 유도                                                            |
| <input type="checkbox"/> 평가보고회 개최  | '99.12.22.            | □ 참여회원: 40명                                                                                                                                |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br>·회원소개 및 거래경험 발표                                                                                     |
| <input type="checkbox"/> 소식지 발행    | '99. 8. ~<br>2000.10. | □ 총11호 발행<br>□ 내용:<br>·송파품앗이 소개<br>·거래 품목 게재<br>·거래 내역 공개<br>·회원 거래 사례<br>- 발행부수: 300/3,000부                                               | ·회원들의 거래 품목 및 개인별거래내역공개<br>를 통해 거래유도<br>·품앗이 관련 정보를 통해 품앗이에 대한 이해와 회원들 스스로 거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유도함                  |
| <input type="checkbox"/> 월례 간담회 개최 | '99. 9. ~<br>2000.10. | □ 총12회 개최<br>□ 참여인원: 월 15여명<br>□ 내용:<br>·송파품앗이 교육<br>·거래시 유의사항 안내<br>·회원소개, 거래경험 발표<br>·거래 교환                                              | ·송파품앗이 소개 비디오 시청<br>·회원 소개와 회원간 거래시 느꼈던 점을 나누어 개선방안을 모색함<br>·간담회를 통해 회원간 신뢰감을 형성하고 송파품앗이 사업 및 거래품목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거래 활성화 |
| <input type="checkbox"/> 거래관리      | '99. 8. ~<br>2000.10. | □ 거래건수 : 316건<br>□ 거래 회원수 : 72명<br>□ 거래내용<br>-물품: 아기옷장 외 7품목<br>-서비스: 컴퓨터 교육 외 51품목<br>□ 총거래액<br>-현 금 : 1,742,430원<br>-지역화폐 : 9,881,500 SM | ·전문적인 서비스와 자질을 가진 회원들이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주고 받음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도움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 4. 사업 추진 내용

##### ■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1. **회원 가입** | 18세 이상의 송파구 및 인근 지역주민으로 가입신청서와 회원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회원이 된다.
2. **거래 신청** | 송파품앗이 센터에 주고 싶은 물품 및 서비스를 신청한다.
3. **거래 하기** | 물품과 서비스를 받고 싶은 회원은 센터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회원의 연락처를 받아 거래한다.
4. **거래 내역 통보** | 거래를 마친 회원은 센터에 거래내역(거래일, 거래회원, 거래품목, 금액 등)을 통보한다.
5. **계좌정리 및 공지** | 센터는 회원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 ■ 거래사례

**사례 1** |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수연 회원(송파품앗이 운영위원장)은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수리, 컴퓨터교육, 게다가 가전제품수리까지... 하루는 송파품앗이 센터로 피아노레슨을 하는 박병희 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믹서기가 고장 났다고... 문득 황수연 회원님이 생각나 전화를 드렸다. 송파품앗이면 모든 일을 다 팽개치더라도 달려오시는 고마운 분이길래... 아니나 다를까 황회원님은 “(밝은 목소리로) 제가 해드려야지요” 하시면서 회원의 연락처를 물어오신다.(원래 송파품앗이의 거래는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이 연락을 하시게 되어 있다) 거래가 끝난 뒤 말씀을 들어보니, 수리를 해주신 후 댁에 와서 꼼꼼히 생각해보시니 이 소형 믹서가 모양은 예쁜데 설계시 부품중 한 부분의 문제가 있어 작동원리를 아시는 황회원에게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용하는 회원이 작동원리를 생각하고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회원님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보증수리를 하셨다고 한다. 덕분에 박병희 회원께서는 지금 소형 믹서기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웃을 생각하는 송파품앗이는 A/S도 된답니다!

**사례 1** | 박은미 회원은 송파품앗이 회원의 소개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가입을 했다. 현재 놀이방을 운영하는 회원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있는데 오랫동안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워하던 차에 김홍규 회원님의 지도를 받아 요즘은 생활에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고 있다고 기뻐하신다. 또한 회원은 전문적인 영어선생님께 개인교습을 받게 되는 것도 품앗이만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 관악지역화폐

■ 단체명 : 관악지역화폐

관악지역화폐는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관악녹색가게 3개 단체가 연대하여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하에 펼치는 지역공동체망 사업입니다.

담당자 : 권인천

전화번호 : 02)867-8219

전송번호 : 02)853-8732

E-mail : [overmoney@overmoney.or.kr](mailto:overmoney@overmoney.or.kr)

Homepage : [overmoney.or.kr](http://overmoney.or.kr)

■ 지역화폐 명칭 : 나무

■ 회원수: 82명 (2000년 10월 26일 현재)

■ 회원의 연령대 (많은 순으로 나열) :

① 20대, 30대(각각 22명) ② 40대(15명) ③ 50대이상(5명) ④ 10대(4명)

■ 성에 따른 비율 : 남자 33.8 % 여자 66.2 %

■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 :

- 나이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며, 여자가 많습니다.

■ 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시기 : 2000년 3월

■ 본 단체의 지역화폐 목표와 의의

1) 의의

① 자원통합의 새로운 모델

② 주민밀착형 지역화폐 운용

③ 지역운동(=주민모임) 활성화

2) 성격

- 기존의 실업사업(예, 생계비전달, 희망의 카드)이 갖는 일방적 지원·수혜적 성격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함.

- 또한 지역화폐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에 대해 논의함. 논의 결과 아래

표에서 레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그 배경으로는 첫째,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이나 후원의 개념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와 구분 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배제한 영역, 특히 실질적인 노동가치가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타임달러를 배제하기로 함. 둘째, 레츠시스템은 아우어즈시스템에 비해 보급이 많이 된 편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지역화폐를 직접 인쇄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경제성 문제와 거래 기록을 관리소에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레츠시스템을 선택함.

|               | 레츠                                                   | 아우어즈                                                                           | 타임달러                                                           |
|---------------|------------------------------------------------------|--------------------------------------------------------------------------------|----------------------------------------------------------------|
| <b>화폐의 유형</b> | -계정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지역화폐<br>-지역화폐 명칭은 다양함(관악 지역화폐 : 나무)   | -지역화폐를 직접 인쇄하여 발행함                                                             | -계정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지역화폐                                            |
| <b>화폐의 가치</b> | -국가화폐의 시장가치와 동일                                      | -준속권 노동의 임금에 상응한 계정단위로서 1시간의 노동을 1아우어로 사용함<br>-아우어즈의 가치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조정가능함 | -서비스 시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님                                            |
| <b>발생 동 기</b> | -경제위기, 대량실업, 화폐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마비를 막기 위해 자족적인 시스템 형성 | -레츠거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화폐를 발행                                                 | -자원봉사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시도<br>-원래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불 수단을 주기 위해 고안됨 |

### 3) 관악지역화폐 시스템

- 사업의 목표가 일관되지 않고 아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 보고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 시범사업기간에는 약정서 없이 - 다시 말해, 어떠한 규정이나 자격 요건 없이 - 회원 활동을 하도록 개방.
- 시범 사업의 운영 원칙은 별첨 자료 참조

#### ■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소식지에 회원들의 전화 번호가 있다. 이를 보고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하거나 운영자에게 문의할 경우 운영자가 거래 연결을 해 준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원 모임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 거래사례

### ① 수지침 강좌

일시 : 2000년 9월 1일 ~ 10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관악주민연대 교육실

목적 : 1. 강좌를 통한 지역화폐 거래의 활성화 유도  
2. 지역화폐를 통한 교육강좌의 모델 제시

내용 : 강사분이 서울대에서 열린 사회참여활동강의에서 지역화폐로 전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재능인 수지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여 시작함. 수강생은 3명(주민2, 학생1)이었고 2달간 진행됨.

### ② 회원 모임

거래 : 대학생 누씨 → 검정고시 준비생 오씨 (과학 과외) → 대학생 오씨 (피아노 강습)

목적 : 1. 관악지역화폐에 대한 신뢰 및 인식확대를 통한 참여동기 유발  
2. 회원들의 참여와 만남을 통해 회원 서로간의 신뢰획득 및 지역화폐의 구체적인 자기필요성 인식  
3. 문서회원을 넘어서는 회원정체성 획득 및 공동의식 유발과 이를 통해 활발한 거래 유도  
4. 첫 번째 행사를 통해 정기적 모임의 필요성, 방향, 일정 공유

## (별첨) 관악지역화폐 시범운영 공동주관 원칙

제안단체 : 사)관악사회복지, 관악녹색가게

공동주관 :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관악녹색가게

관악지역화폐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 주관단체가 함께 주민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 각 단체와 별도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가진다.

시범운영을 함께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분명히한다.

- 실행팀은 관악지역화폐 활성화를 지원하고 조직하기 위한 실무집행단위이다.  
(월2회 정기 모임)
- 운영위원회는 관악지역화폐 활성화를 지원하고 조직하기 위한 의사결정단위이다.  
(월1회 정기모임)

관악지역화폐 운영기금은 장기적으로 공동책임이다.

- 시범운영기간동안 재정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한다.
- 지속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간이후 재정확보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시범운영 일정

| 기간   | 시기                 | 내용                                      |
|------|--------------------|-----------------------------------------|
| 5월말  | 회원 확보 시작           | - 회원소식지 1호 발행<br>- 생계비 전달식 활용           |
| 6 월  | 회원 확보 주력           | - 적극적 회원 확보<br>- 소식지 2호 발행<br>- 홈페이지 제작 |
|      | 회원 거래 활성화          | - 가입한 회원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락체계 구축           |
| 7 월  | 회원거래 활성화           | - 회원 마당1<br>- 소식지 3호 발행                 |
| 8 월  | 회원거래 안정화           | - 소식지 4호 발행                             |
| 9 월  | 주체형성               | - 열성회원 발굴 및 모임 조직                       |
| 10 월 | 시범운영 정리 및<br>전망만들기 | - 소식지 5호 발행<br>- 회원마당2<br>- 시범운영기간 평가회  |

## 인천 지역화폐 추진위

■ 단체명 : 인천 지역화폐 추진위

인천실업극복본부, 인천생협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담당자 : 남인숙 (인천실업극복본부) / 송영석 (인천평화의료생협)

전화 : 032)766-8521 / 전송 : 032)891-5677 - 인천실업극복본부

전화 : 032)524-6911 / 전송 : 032)526-7608 - 인천평화의료생협

E-mail : is8521@chollian.net (남인숙) / jjibine@hananet.net (송영석)

■ 지역화폐 명칭 : 나눔

■ 회원수: 2000년 10월 현재 300명

10월 인천실업극복본부 상조회를 중심으로 회원등록을 시작했으며, 인천생협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YMCA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하여 인천 시민단체, 생협, 지역주민자치센타가 참여하는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1월부터 실거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시기

인천에서는 작년부터 인천정보통신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연대등에서 먼저 지역화폐활동을 벌여왔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 홍보 부족, 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주체의 참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인천실업극복본부, 인천생협연대, 시민단체(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YMCA)등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지역화폐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천생협연대에서는 5월 인천생협연대회의에서 우선 7개 생협에서 지역화폐활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회원 교육과 함께 지역화폐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 9월 인천실업극복본부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시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10월 18일 부평여성문화회관에서 오후 4시 인천지역 지역화폐 워크샵을 열고, 인천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였다.

## ■ 본 단체의 지역화폐 목표와 의의

IMF 구제금융으로 위급한 국가 부도 사태는 넘겼다고 하지만, 대우차 매각 실패 등 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다시금 제 2의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이 우리 사회에 다시금 엄습하고 있다. 사실 문어발 확장의 구태의연한 기업경영방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위기를 가져오는데,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독점 및 지배 구조는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4대 재벌의 시장 지배는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명분하에 시행된 대량 해고의 여파속에 실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있고, 부유층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반면, 중산층이하 계층은 아직도 IMF이전의 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앞으로 깊어야 할 외채의 부담이 고스란히 풀뿌리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매각 지연으로 인한 인천지역 경제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의 실직자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어, 실직자, 시간노동자, 주부, 고령자들의 상호부조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자연스레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수입 석유 에너지와 식량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현재 벌어지는 석유 파동과 또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식량 파동에 아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소비증가를 세계 1위의 경제 구조, 쌀 외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 구조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더이상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화폐운동은 '경제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국제사회의 경제적인 변화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친환경적인 농업 및 소비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풀뿌리 경제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역화폐는 작은 경제, 경제적인 약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친환경적인 지역 생산 및 소비구조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화폐는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풀뿌리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

인천생협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 YMCA등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전개된 환경운동을 친환경적인 경제공동체 건설과 시민들의 소비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 대안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인천지역에 지역화폐를 도입 운영하기로 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시민들이 회원 등록하려면 인터넷 지역화폐 사이트(<http://www.inanum.net>)를 통하거나  
실업극복본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등록소에 통하여 무료로 가입하고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상품을 홍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된다. 지역  
화폐 관리시스템이 홈페이지와 함께 구축되어 있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기  
능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거래 실적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여러 서비스, 물품, 자원들을 정보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므로, 이전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편리하고, 신속하  
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현재 행정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통화시스템은 너무 광역화되고, 실  
지 지역사회에서의 경제, 복지활동과도 유리되어 있어 실지 지역화폐의 활용은 아직 미  
진한 형편이다. 지역화폐시스템이 지역에서 실지 협동적인 지역경제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까지 지역공동체운동을 추진해온 지역주민조직체, 생활협동조합의 참여가 지역화폐시스  
템의 본격적인 추진, 정착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실업극복본부등 지역화폐시스  
템의 실 수요층이 참여가 기대되고, 지역에서의 협동적인 경제 구축의 실 활동을 추진해  
온 생활협동조합이 지역화폐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역화폐시스템의 정착  
에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참여가 지역화폐로 상징되는 지역 경  
제공동체의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중  
요한 지역의 농업, 식품경제, 재활용 및 환경산업, 시민문화, 의료복지, 생필품 분야의 협  
동조합, 자영업자,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향후 역할을  
가름짓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시스템의 사회 기여와 가치 지향과 철학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과정  
이 지역화폐 정체성의 정립과 더불어 지역화폐 추진의 동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단지 외  
국의 한 제도를 그냥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상황에서의 해석과 재정립의 과정을  
거쳐야만 지역화폐시스템은 비로소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화폐시스  
템의 의의와 그 가치지향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의 협  
동적인 공동 노동의 형태인 품앗이를 지역화폐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노력도 지역화폐의

정신과 그 뿌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현 사회 경제에서의 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자, 시간 노동자, 주부, 고령자등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그리고 협동적인 경제 불럭을 만들려는 시도는 현 사회의 경제 부정의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도전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단위의 친환경적인 경제불럭의 형성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환경파괴적인 사회시스템을 제어하게하는 도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현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경제 부정의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여 나온 대안적인 사회운동으로 지역화폐를 성격지을 수 있다.

동단위마다 만들어질 주민자치센터등은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와 여러 시도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환경은 지역화폐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시스템의 정착에 필요한 것이 지역화폐시스템의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어차피 이 시스템이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부합하여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접근하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 대중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사회에서의 화폐와 같이 자신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언제나 구입가능해야 하며, 대신 현 화폐와 같이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참여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화폐 취득하기 위해 노동 착취와 같은 비인격적인 활동, 환경 파괴가 용인되는지 않아야 한다. 지역 화폐시스템이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하면 시민의 의식 개혁과 참여, 운영 관리 능력의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별히 지역화폐를 실무적으로 담당해 나갈 인력에 대해서 생활보장과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화폐는 스스로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회원의 등록과 함께, 등록비를 받는 시민 참여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총회, 운영위 등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할 경우,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하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화폐에 대한 대안화폐기능을 수행하게 하지만, 또 화폐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개혁해나가는 과제를 또한 지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대안은행운동, 대안사회운동이 성격이 약화된 신용협동조합을 개혁하는 과제를 지니게 된다. 장차 신탁, 대안은행을 만들어갈 비전을 생각해본다면, 지역화폐의 추진체는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격과 조직특성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화폐시스템에서는 경제, 문화, 교육, 복지 활동등을 가능하면 작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대안적인 사회체계로서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시스템이 대안사회체계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여부

는 그 이념적인 매력도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이 시스템에서 충족되고, 또 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향상되느냐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화폐시스템의 대중적인 정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지역화폐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관리 운영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대중적인 활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 웹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계기로서 지역화폐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한발레츠

■ 단체명 : 대전한발레츠

인천실업극복본부, 인천생협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담당자 : 김성훈

전화 : 042)256-2465

전송 : 042)256-2466

E-mail : duru@dreamwiz.com

http://www.tjlets.or.kr

■ 지역화폐 명칭 : 두루

■ 회원수 : 125명

■ 회원의 연령대 (많은 순으로 나열)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이상

■ 성에 따른 비율 : 남자 38 % 여자 62 %

■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 : 30대

■ 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시기 : 1999년 10월

■ 본 단체의 지역화폐 목표와 의의 : 지역공동체회복과 친환경적인 경제시스템 구축

■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게시판을 보고 필요한 회원과 직접 연락하여 거래, 거래 후 제공한 측이 등록소에 통보, 등록소 계정 유지 및 관리

■ 거래사례 : 대학생 회원 초등학생 과외, 주부 밑반찬 만들어 주기, 한의원 한방진료, 필요없어진 임신복 7벌 거래, 컴퓨터 A/S, 영화관람, 아기돌봐주기, 자전거 빌려주기, 워드 대행 등등

### 공동체 화폐 ‘두루’로 열어나가는 행복한 마을 한발레츠

작년 10월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한발레츠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회원모집을 시작 하였습니다. 회원모집은 언론매체의 보도와 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시 초기 가입한 회원들의 입소문으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산파역할만 하기로 하고 창립행사를 계기로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2월 창립행사를 하고 그곳에서 간단한 사업설명과 오락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설명은 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레츠의 취지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에 맞추어졌고 이를 위해 사전에 홍보비디오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원의 도움을 받아 약 15분 분량의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가상거래를 유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락회는 회원간의 유대감과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몇몇 회원의 장기를 감상하는 것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창립모임 이후 거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레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보다는 추상적인 이념에 동의하여 가입한데다 그러한 분들일수록 타인의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서툴렀습니다. ‘별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오랜 화폐제도의 폐습에 익숙해져 감히 먼저 빛을 지겠다는 생각 대신에, 막연히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자연이 소비욕구도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과 접촉하여 협상해야 한다는 어색함, 선뜻 그 가치를 판단내리기 힘든 물품이나 용역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엔 시작부터 홍보와 교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등록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발레츠는 조직형식으로 총회를 두고 운영위와 사무처를 두는 등의 형식적인 의결체계를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등록소장과 시스템관리자 만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몇 분을 선정하였고 편의상 운영위원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기 시스템의 틀을 잡고 유지하기 위하여 박용남(대전의제21사무처장)선생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과 두루(한발레츠의 공동체 화폐명)를 함께 사용할 시 현금거래의 비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의 회원가입을 놓고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입 의사를 밝힌 주유소사장은 석유의 원가가 높은 점을 들어 5%만을 두루로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석유가 상대적으로 구매욕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초기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비록 두루 비율이 비록 낮으나 회원가입을 시키자고 하였고 한편에서는 역시 거래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좋지 않은 선택을 남겨 현금 소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결국 예외는 두되 70% 이상의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거래는 제외하자는데 결론을 내리고 이 주유소 사장은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둘째, 현금과 두루의 교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회원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 거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거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금과 두루를 교환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면 현금이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지게 되어 시스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거부되었고 대신 등록소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 당장의 현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입비와 수수료로 모아진 등록소 소유의 두루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인근 지역에서 가입의사를 밝히는 분들 역시 원칙을 적용하여 회원가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단위로서 대전의 행정구역은 적절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회원간의 접근성을 높여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단위로의 자급자족형 경제시스템을 유도한다는 애초의 공동체복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구 단위로 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발레츠는 가급적 사업 취지와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던 것이 큰 장점이지만 등록소 운영을 위한 재정이나 인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몇몇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에 힘입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한발레츠가 자랑할만한 사업으로는 ‘품앗이 만찬’이 있습니다. ‘품앗이 만찬’은 격달로 치러지는 회원간 회합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물로 뷔페상을 차려 서로 나누어 먹으며 회원간 근황을 확인하고 신입회원을 소개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거래목록을 홍보하고 등록소의 상황을 공유하며 개인적 의견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재주있는 회원들이 장기자랑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처음 시작한 ‘품앗이 경매’는 각종 수공예품, 농산물, 재활용품 등 10여건의 물품을 경매 형식을 띠어 현장에서 직접거래하게 하여 ‘현금 한푼 들이지 않고 좋은 물건을 샀다’며 회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7월 행사와 더불어 한발레츠 전반에 관한 사항이 대전MBC 주말 정보프로그램에 10분 가량 방영되었고 현재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한발레츠의 회원수는 2000년 2월, 70명 창립 이래 현재(10월 말) 125명으로 증가하였고 거래는 월평균 20~30여건 성사되고 있습니다. 회원수와 거래횟수가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발레츠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욕을 유발시킬 만한 거래목록이 많지 않은 점, 거래하고 싶으나 거리 접근성이 떨어져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점, 초기의 열성적 소비자들이 정작 본인의 수입이 불명확하자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점, 열성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이탈 등이 회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래횟수는

증가하고 있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외, 교습, 대여 등의 월 고정거래 3~4건, 품앗이 경매(차후 설명)를 통한 거래 10여건, 한의원 10여건, 기타 3~4건의 거래는 매월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올해 10개월의 기간이 그 가능성을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다면 내년에는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과 공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 단체명 : 기술도구은행

중앙대학교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 유지민

전화 : 02)872-5802

전송 : 02)888-5614

E-mail : stbank@naver.com

<http://stbank.giveu.net>

■ 지역화폐 명칭 : CM(Community Money)

## 민들레 교육통화

■ 단체명 : 민들레 교육통화

담당자 : 현병호 (대안교육 격월간지 「민들레」 발행인)

전화 : 02)322-1603

전송 : 02)322-1603

E-mail : mindle98@chollian.net

<http://user.chollian.net/~mindle98>

■ 지역화폐 명칭 : 민들레

■ 민들레 교육통화 소개

### 교육통화 시스템을 열면서

지금의 교육시장 구조는 학교처럼 거의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어 정해진 수강비를 내고 대량 강의식 수업으로 교습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돈이 없으면 배우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충분한 교육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저마다 지니고 있는 교육 자원을 썩히지 않고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기타를 배우고 싶은 컴퓨터 선생이 있다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면 된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한 가지쯤은 그런 대로 잘 할 줄 아는 뭔가가 있다. 설령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썩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또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용없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학습교재라든가 도구들이 집집마다 구석구석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서로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멀리 내다보면 이것은 곧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서로를 도움으로써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회를.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서로를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부터 살벌한 경쟁 관계에 단련이 된 우리는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아남는 지금의 경제제도와 교육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가 비인간적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들레 교육통화 시스템은 서로를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경제, 서로를 일깨우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 **민들레 시스템 운영 방식**

교육통화 시스템은 현재 세 군데서 꾸려지고 있다. 격월간 민들레에서 1999년 1월부터 시작한 ‘민들레 교육통화’, 1999년 12월부터 탈학교실천연대에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관악 교육통화’, 2000년 5월부터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신촌 교육통화’ 시스템이 있다. 화폐 단위는 다 같이 ‘민들레’를 쓴다. 관악 교육통화는 독립된 홈페이지를 통해 교류가 활발하며 신촌 교육통화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민들레 교육통화 시스템 회원은 현재 50명쯤 된다. 학생, 학부모,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다.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대안교육지 격월간 『민들레』 정기구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감대가 더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통화라고 하지만 지역통화와 거의 다를 바 없다. 다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주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운영상에서 다른 지역통화 시스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이너스 계정에 한계를 둔다는 점일 것이다. -50만 민들레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다. 거래가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성이 약한 도시에 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일 경우 마이너스 계정자에게 어느 한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화 시스템에서도 교육 서비스 말고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악기라든가 컴퓨터, 책, 그밖에 다양한 물품들도 주고받을 수 있다. 지리산에서 차농사를 짓는 분은 차를 제공하는 대신에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책이나 유아용품을 제공받기도 한다. 지역통화라는 말 대신에 굳이 교육통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민들레 통화의 특성을 살리고 또 우리 교육 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이다.

민들레 교육통화의 화폐 단위는 일반 화폐 단위와 같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서로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관악교육통화에서는 시간당 5천 민들레로 정해 놓고 있다.) 교육통화는 꼭 홀로 쓰일 필요는 없고, 일반 화폐와 섞어 쓸 수도 있다.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교습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므로 한번 시작한 사람은 계속 관계를 갖는 편이다.

2001년부터는 민들레 교육통화를 작아장터처럼 품앗이 방식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이 자기 계정 내역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고 운영자가 일일이 신경을 쓰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통화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걸끄러워 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체로 일단 서로 가까워지면 통화를 계산해서 주고받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편이다.

민들레 정기구독자들의 경우에는 통화의 매개 없이 주고 싶은 이들은 주고, 받고 싶은 이들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맞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교육통화 게시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정기구독자는 누구나 게시판에 올라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품앗이 방식으로 바꾸면 게시판에 자기 소개를 올린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할 예정이다.(2000년 10월 말 현재 민들레 정기구독자는 2천2백여 명이다.)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두레」

■ 단체명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담당자 : 김일복 간사  
전화 : 02)587-8997  
전송 : 02)587-8998  
E-mail : siofok@hanmail.net  
<http://www.jungto.org/baea>

■ 회원수 : 80명

■ 회원의 연령대 (많은 순으로 나열) : ① 30대 ② 2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⑤ 10대

■ 성에 따른 비율 : 남자 40 %, 여자 60 %

■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 : 20대

■ 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시기 : 1998년 교육생 및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

■ 본 단체의 지역화폐 목표와 의의 : 대안 생활양식으로 지역화폐가 지닌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다른 단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 소식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e-mail로 연락을 한다.
-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적절한 두레와 일을 합의한다.
- 거래를 하고 교육원 통화소에 전화로 결과를 알린다.

■ 거래사례

- 환경관련 정보나눔

환경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진행하다보니 환경관련 정보나눔이 거래되고 있다.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나누어요가 3건 있고 환경교육에 관한 도우미 또는 자료를 필요해요가 2건이다. 이 거래의 경우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 맞게 거래가 일어났다. 서울시내를 비롯 답사와 지역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계신 정미순씨는 교육원에서 슬라이드기계와 책 한 권을 1만 5천 두레(100%) 빌렸다. 환

경교육원도 통화소 검 회원이므로 환경교육원의 자료를 필요로 할 때 거래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 상담의 경우 두레 통화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 내놓는 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두레라는 매개 없이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두레 소식지는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의 나눔장터 역할을 한다.

#### - 교육원의 일로 두레를 거래한다

소식지를 보면 우리 거래는 교육원 발송작업이나 대학교에 강좌 포스터 붙이는 작업 등 교육원 일을 두레로 계산하기도 한다. 그냥 자원활동 하기엔 품이 좀 든다 싶은 경우에 주로 두레로 노동력을 쳐서 두레로 거래를 한다. 이런 일인 경우 도와주는 친구들은 교육원 환경강좌를 수강한 대학생들이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자료를 빌려가는 것으로 두레화폐를 이용한다. 현재 교육원은 자료 외부유출을 안하고 있지만 두레 회원들에겐 두레로 빌려준다. 두레 회원이라는 점이 자료를 약속한 날짜에 가져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대여하고 있다.

#### - 강좌 수강

환경강좌의 일부를 두레로 거래한다. 예를들면 참가비가 7만원인 경우 4만원은 현금으로 하고 3만원에 해당하는 3만 두레를 지역화폐로 한다. 이번 19기 강좌는 포스터를 보고 지역화폐 문의를 해서 지역화폐 가입을 하고 수강 신청을 2명이 했다. 이 회원들의 경우 강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준비를 도와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가하고 있다. 강좌 전에 메일이나 전화로 여러번 연락을 한 후 강좌를 시작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다.

#### - 지역화폐 한마당 (10월 22일 보라매 공원)

① 아이들과 보라매공원 한바퀴 : 현장에서 아이들을 15명 정도 모았다. 도우미는 2명이 고 지역화폐 회원들이다. 행사장 주변 호숫가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자연식생을 관찰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지역화폐 홍보장터를 여유있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② 한지공예 : 한지공예 기능을 가진 회원이 지역화폐와 재료비 정도의 현금을 받고 현장에서 강습을 했다. 현장 강습비는 모두 두레로 적립됐다. 여러명에게 한 번에 설명을 하고 같이 만들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한지공예같은 기능은 서로 만들기 쉬우므

로 회원의 날 같은 행사에서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다.

③ 손뜨개 : 물품 4점을 판매했고 한 학생에게 손뜨개 강습을 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물건과 사연이 있는 물품을 팔 수 있어서 좋았다. 손뜨개 강습은 20여분 했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워했지만 나중엔 자기도 직접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면서 좋아했다.

두레장터에 의식주와 관련된 품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먼저 나부터 한 번 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화폐의 장점을 체험해보고 있다. 쓴 사람만이 아는 정이 묻어나는 거래 지역화폐는 화폐로서의 교환기능보다 지역화폐에 동의하고 활성화를 바라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운영자로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순간 순간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소상하게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 지역통화 운영단체

| 단체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담당자 HP        | E-메일                       | 비고                           |
|--------------|--------------|------|---------------|----------------------------|------------------------------|
| 서초 품앗이은행     | 02)570-6315  |      |               |                            | 서초구청 기획예산과                   |
| 송파품앗이        | 02)2202-2351 | 문수지  | 019-407-8907  | moon@songpa.seoul.kr       | 송파구청 자원봉사센터                  |
| 대구 중구청       | 053)429-1381 | 이운락  |               | mail:center@business.go.kr | 지역경제활성화<br>지원센터(폐쇄)          |
| 대구동구청 봉사 품앗이 | 053)986-1365 | 신중호  |               | tjvongsa@chollian.net      | 주민자치과                        |
| 인천정보통신연대     | 032)868-8566 | 강형원  |               | hwkang@letskorea.org       |                              |
| 작아장터         | 02)744-9074  | 박경화  |               | jaga96@hanmail.com         | 녹색연합                         |
| 구리녹색가게       | 031)565-6351 |      |               |                            | 구리YMCA                       |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02)587-8997  | 김일복  |               | siofok@hanmail.net         |                              |
| 열린사회시민연합     | 02)708-4096  | 허선행  | 018-239-8978  | openc@chollian.net         | 은평시민회                        |
| 관악지역화폐       | 02)867-8219  | 권인천  | 017-242-4385  | pska21@chollian.net        | 관악주민연대<br>관악녹색가게<br>관악사회복지법인 |
| 전주 품앗이       | 063)245-2778 | 황은영  |               |                            | 전주근로자상담소                     |
| 민들레          | 02)322-1603  | 현병호  | 018-271-1603  | mindle98@chollian.net      |                              |
| 이름다운지역공동체 나눔 | 032)423-9708 | 최주영  | 016-289-0275  |                            | 평화와 참여로 가는<br>인천연대           |
| 기술도우은행       | 02)872-5802  | 유지민  | 011-9741-8215 | yaqoo@hanmail.net          | 중앙대부설<br>종합사회복지관             |
| 감리교통합품앗이     | 043)872-8979 | 차홍도  | 019-488-8979  | hunn@chollian.net          | 감리교농촌선교<br>훈련원(음성)           |
| 인천 생협        | 032)890-2860 | 임종한  | 011-9781-5770 | ekeeper@peacenet.or.kr     | 인천평화의료생협                     |
| 청주시청         | 043)220-6229 | 권후봉  |               |                            | 6월 실시                        |
| 안양시청         | 031)389-2487 | 장정연  |               | zummer@dreamwiz.com        | 자원봉사센터                       |
| 제주여성민우회      | 064)756-7261 | 윤홍경숙 |               | jejuwa@chollian.net        | 최근 시행                        |
| 성남 참사랑 복지회   | 031)747-6177 | 피혜선  | 016-347-7348  | pum6177@hanmail.net        | 준비중                          |
| 전주           |              | 이종진  | 016-636-1496  | jongjinee@hanmail.net      | 준비중                          |
| 미내사클럽        | 02)747-2261  | 곽형모  | 019-390-2261  | herenow@herenow.co.kr      |                              |
| 대전 한밭 레츠     | 042)256-2465 | 김성훈  |               | duru@dreamwiz.com          |                              |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031)492-8785 | 박현우  | 011-768-8206  |                            | 준비중                          |
| 대전빈들교회       | 042)621-8891 | 박연화  |               | kimbd@chollian.net         | 1월부터 재개시                     |
| 성북청년회        | 02)909-2816  | 권기혁  |               | kkhsb@smg.or.kr            | 준비중                          |
| 대구 남구청       |              |      |               |                            | 여름부터 실시                      |
| 영강살림은행       | 033)765-3216 | 정곤희  | 011-732-7321  | goneej@unitel.co.kr        | 원주 영강교회                      |
| 의정부YMCA      | 031)878-9898 | 박소영  |               | uymca@chollian.net         |                              |
| 청주 생태연구소     | 043)234-3429 | 박완희  | 019-466-2202  |                            |                              |
| 참여복지 시민연합    | 02)2299-1436 | 윤홍순  | 011-9884-8268 | chambok@chollian.net       |                              |

길동 두산연수원 배치도

## 1층 배치도

|                                |        |        |  |      |                                                             |
|--------------------------------|--------|--------|--|------|-------------------------------------------------------------|
| 식<br><br><br><br><br><br><br>당 |        | 경비실    |  | 관리실  | 사<br><br><br><br><br><br><br>무<br><br><br><br><br><br><br>실 |
|                                | 화장실(남) | 화장실(여) |  | 중강의실 |                                                             |

## 2층 배치도

|      |      |         |          |          |         |
|------|------|---------|----------|----------|---------|
|      | ↓ 계단 | 소강의 1실  | ↓ 계단     | 외국어교육 2실 | 소강의 4실  |
| 대강의실 |      | 화장실 (남) | 외국어교육 1실 | 소강의 2실   | 화장실 (여) |
|      |      |         |          |          |         |

3층은 숙소입니다.